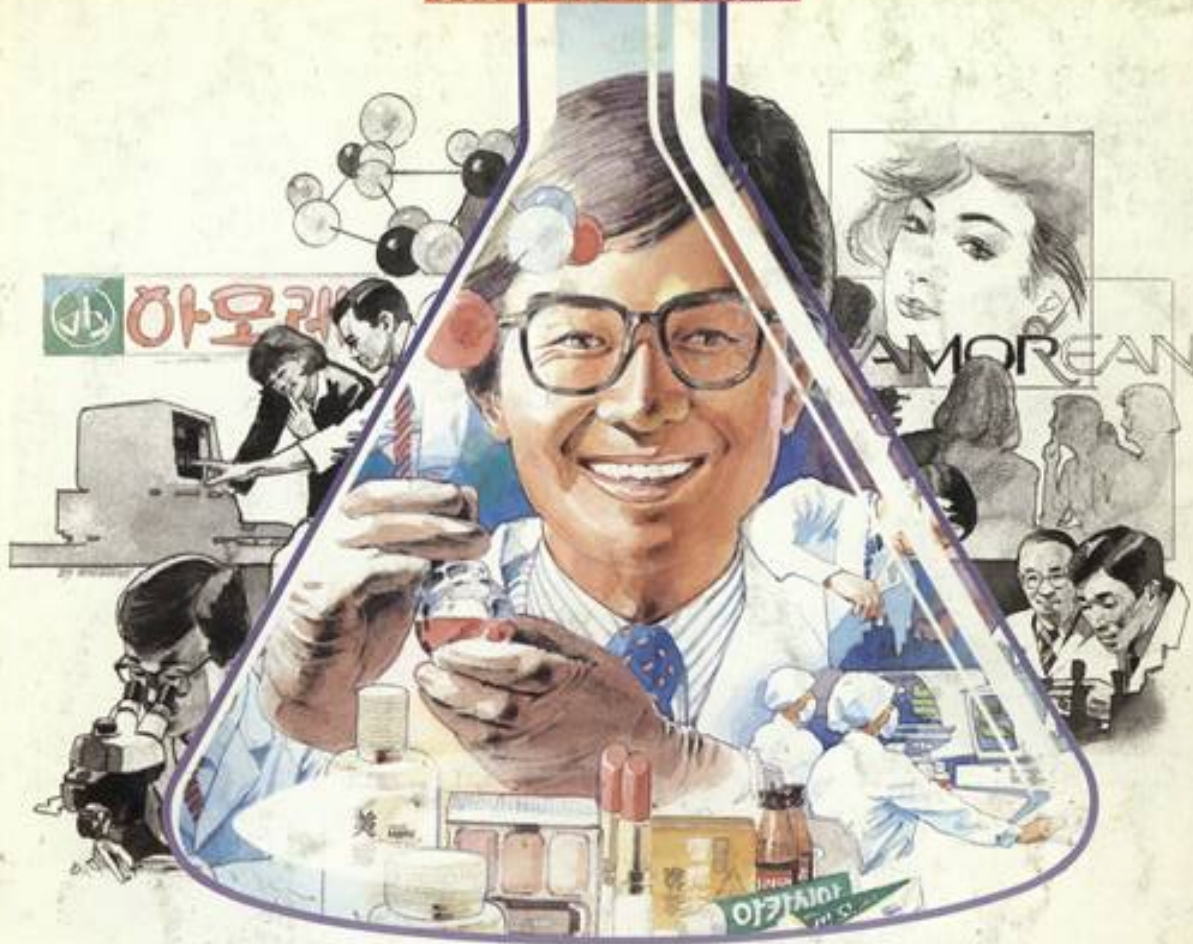




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위해 244명의 연구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아름다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평양화학

인류의 아름다움, 사회의 아름다움을 위한 태평양화학의 노력은 90년대에도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첨단의 신소재와 생명공학을 응용한 심도있는 피부과학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저자극성 화장품 뿐 아니라 각자 피부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성분의 화장품,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가정생활용품,

식품 등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제품을 연구·개발해왔던 태평양화학 244명의 연구원들—지금 이 순간에도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중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평양화학이 새롭게 펼쳐갈 90년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을 앞당겨 실현시킬 것입니다.

여성

월간여성 8월호(통권288호) / 1991년 8월-10월
(매월 10일) 발행 / 1964년 6월 13일 등록(서)라-7
1965년 2월 25일 제3종 우편물(나)인가
(우편번호 140-013)

사단
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특집
가정교육의 위기를
진단한다



1991.8



人間은 무엇을 원하는가?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초우량 종합화학회사—럭키

중요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회—
밝고 건강한 웃음으로 가득한 생활—
바로 럭키의 궁극적인 경영목표입니다.

세계 최초 제4세대 세파계 항생제 개발,
인터페론 감마 개발 및 제품화에 성공한
초우량 종합화학회사—럭키는
첨단화학기술과 고객제일주의 정신으로
중요의 참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럭키
LUCKY LTD.

월간 여성

1991년 8월호

통권288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女聲**
본에 넘치는 소비행태, 이 여름을 더욱 덥게 한다 / 이정순

특집 / 가정교육의 위기를 진단한다

6 본때 있게 치맛바람 일으켜보자 / 박혜란

9 획일적·폭력적 가정교육의 실체 / 박성숙

11 봉숭아 꽃물을 물어는 마음 / 강현자

13 별 욕심 부리지 않고 키운 새남매 / 정양환

15 부모 자식간의 진솔한 대화가 절실하다 / 장현섭

17 여성문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민화의 등장 / 김이랑

22 여성전문직
속기사 / 방영순

24 제13차 세계소비자대회에 다녀와서
전세계 소비자운동의 방향 정립 / 이연숙

28 소비자 리포트 ②
세계주의에 접근하는 지구환경문제 / 안기희

32 여성계 동향 / 김경자

35 전국여성대회 공고

36 알아두세요
전기 보릿고개 - 전기를 아껴쓰시다

38 협의회 소식

39 지방아협소식

40 우리들의 공장

분에 넘치는 소비행태, 이여름을 더욱 덥게 한다

채 더위가 다 가기도 전 가을타령이 성급했듯, 겨우 밥걱정 면하자 큰 부자나 된양 삼베인부터 터뜨린 어리석음이 이제 이런 꼴로 우리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경순 (본회 기획연구위원)

올여름은 큰 더위 없이 끝나는 것 같았다. 장마가 겹치고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8월 들어서도 이상저온현상 때문에 크게 더위를 느낄 새가 없었다.

한여름답지 않게 날씨가 서늘해서 농사가 걱정이라니 피서용품이나 해수욕장 등 여름 한철 장사가 잘 안되어 울상이라니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피서 못 떠난 이들에게는 덥지 않은 날씨가 큰 부조였다.

그러나 웬걸, 피서 여행 떠났던 이들이 하나 둘 돌아오고 "올 여름도 다갔다"고 너나 할 것 없이 성급하게 가을맞이 기분을 내기 시작하는 요즘 늦더위가 새삼 맹위를 떨친다.

절전 권유가 없어도 선풍기조차 꺼고 싶은 생각이 별로 나지 않을 만큼 수월하게 한여름을 보낸 탓에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더욱 견디기 힘들게 느껴진다.

말복만 지나면 더위는 다 간 것이라니, 올해는 유난히 가을이 빠른 것 같다니 하는 입빠른 소리들을 쏟아놓던 방송도 주춤해서 늦더위 타령에 에어컨 같은 냉방용품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절전 권유 자막을 화면에 까느라 부산하다.

이 늦더위 소동에 겹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체감온도를 실제 높은 기온보다도 2~3도 정도는 더 덥게 하고 있다.

우선 경제 뉴스가 그렇다. 국제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되고 순(純) 외채가 1백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적자구조가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안이한 대응 자세로 일관, 중대한 정책 실기(失機)가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이 수지적자 속에는 올여름 해외로 휴가여행 떠난 이들이 써댄 돈도 크게 한 몫 거들고 있어 놀랍다.

한국은행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관광여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7월중 여행수지적자가 1억 3천2백80만 달러에 달해 월중 규모로는 처음으로 1억달러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다. 7월 한달 동안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사용한 여행비용은 지난해 같은 때보다 7% 줄어든 2억6천90만 달러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사용

한 여행경비는 33.5%나 급증한 4억2백 70만달러를 기록한 것이다. 분에 넘치는 소비행태가 가뜩이나 불안한 대외적자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 일부 물지각한 해외여행자들이 우리 근로자들이 땀흘려 벌어들인 귀중한 외화들을 물쓰듯 펄펄 써댄 내역을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동남아를 휩쓸며 뽕탕, 곰살개, 곰발바다 요리 등 보신관광에, 미국 LA에서는 골프장마다 초만원에 이루도록 온통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새통이며, 게다가 한술 더떠 매춘관광에도 열을 올려 현지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는 낯 뜨거운 소식이 온세상으로 퍼져나간 해외토픽이 되어 되돌아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정부는 뒤늦게 이런저런 규제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양이다. 코끼리 밧줄 소동이 있는지 몇년이나 지났다고 또 이런 추태인가?

채 더위가 다 가기도 전 가을타령이 성급했듯, 겨우 밥걱정 면하자 큰 부자나 된양 삼베인부터 터뜨린 어리석음이 이제 이런 꼴로 우리들을 부끄럽게 한다. ♣

특집

가정교육의 위기를 진단한다

본회는 오는 9월12일 제28회 전국여성대회를 앞두고 '우리의 교육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를 준비하면서, 교육문제의 중요성 및 그 위기를 재차 강조하고 이에 대한 여성들의 자발적인 개선의지를 북돋우고자, 본지에서는 이번호에 '가정교육'의 실상 및 바람직한 방향 등에 대한 글을 모아 소개한다.

본때 있게 치맛바람 일으켜보자 - 새 시대의 어머니들에게 바란다 -

아이 키우기보다 더 큰 형벌은 없다고 푸념하는 이 땅의 어머니들이여, 이제 더 이상 왜곡된 교육풍토의 피해자로서 자기연민에 빠져 있지만 말고, 우리가 먼저 아이들의 가해자 노릇을 집어치우자. 그리고 내 아이와 더불어 살 이웃이들 모두를 소중히 우리 아이들로 품에 안자.

박혜란 (인간교육실험 학부모임대 공동대표)

오늘날 이 땅의 어머니들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는 교육이다. 좀처럼 다가올 것 같지 않았던 통일이 어느새 손에 잡힐 듯한 분위기로 바뀌었다거나, 혼란 가운데서도 지방자치의 서막이 열렸다거나 하는 사건들이 온국민을 들뜨게 만드는 작금이지만, 자식 키우는 어머니의 관심사는 언제나 오 늘이나 그저 '아이들 공부'일 뿐인 것을 어떡하랴. 만약 어머니들에게 '우리의 소원'을 노래하라고 부탁하면 아마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대학'이라고 할 거라는 우스개말이 나돌 정도로, 교육에 관련한 거의 모두가 일종의 집단 히스테리 증상을 앓고 있다.

대학입시날이 가까와오면 전국의 절과 교회는 삼천번씩이고 오천번씩이고 허리를 구부린 채 일어난 줄 모르는 어머니들로, 매일 아침 새벽부터 합격기원의 촛불을 밝히는 어머니들로 초만원에 이른다. 막판에 몰린 입시생 어머니들의 심정은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다치고, 문제는 이제 막 유아원에 들어간 아이들의 어머니들로부터 초·

중·고에 다니는 아이들을 둔 모든 어머니들의 심장 역시 차이가 없다는 데 있다.

세계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나라의 어머니답게 그들은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감수할 자세가 되어 있다. 세 살때부터 영어 조기교육에 피아노·컴퓨터학원을 섭렵시키고, 시험때마다 함께 밤을 새우고,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때로는 과밀학급에서 분산될 수밖에 없는 교사의 관심을 내 아이에게 모으기 위해 돈 봉투도 불사하고, 족집게 과외선생과 줄을 달기위한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더이상 즐거운 학습의 장이 아니며, 교육의 목표는 이미 인격형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대학합격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냉혹해서, 대학에 들어가기 원하는 아이들과 정작 들어가는 아이들의 비율은 무려 4대 1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당분간

그 문은 더 좁아졌으면 좁아졌지 넓어질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요 몇년새 해마다 합격생의 3배나 되는 아이들이 목적지점의 문턱에 걸려 넘어진 채 방황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다독거리며 세워주어야 할 어머니 자신들이 극도의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진 채 허우적거리고 있다.

위기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왜곡된 교육풍토는 이토록 어머니들의 전생애를 사로잡고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을 안은 채 아이들을 채찍질하고 있다. 아이들은 국민학교 교실에서부터 서로를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 보면서, 결국 모든 인간관계를 화합이 아닌 대결구도로 파악하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은 꿈도 희망도 모두 대학입학 후로 미루고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게 다 너희를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입시예의 길로 몰아대는 어머니들과 물리는 아이들의 절망적인 한숨소리로 가득찬 '아, 교육왕국', 대한민국.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왜곡된 교육

풍토를 비난하거나 한탄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세상이 워낙 그렇게 돌아가고 대세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간 우리 어머니들 스스로의 냉철한 각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왔다. 대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단 한번도 대안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우리의 태만을 스스로 꾸짖어야 할 때가 왔다.

그저 바라보고만 있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고, 세계는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비록 20세기의 산물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21세기가 아닌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 어머니들은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나 우리 아이들을 새롭게 거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어머니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스스로 남은 현모양처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머니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나갔다. 새로운 현모양처는 우선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홀로 설 수 있을 때

가능한 법이다.

최근 30여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여성의 사회참여가 눈부시게 이루어진 것같이 보이지만, 아직도 여성의 일차적 역할은 가정안으로 제한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일은 남성네들의 일이고, 여성은 남편 뒷바라지와 자녀양육(교육)을 전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부부관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자녀양육이라는 과업이 어떻게 사회와 동떨어진 일이며 여성 혼자서 소신껏 추진해나갈 수 있는 일인가. 교육풍토가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내 아이의 낙오에 대한 불안감이 어머니들을 쫓대있는 인간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휴탄물을 더 더럽히는데 일조를 하게 한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교육에 관한 한 정반대로 해석되는 현실을 돌아보자. 예를 들어 돈봉투 문제는 그것이 결국은 다른 아이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는 이기적인 행위로, 공정한 게임의 룰을 어기는 짓임을 모르지는 않지만, '어머니 노릇을 잘 하기 위해서'라는 구실을 내세우면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문제로 둔갑한다. 남이 저지르면 비리이지만 내가 하면 정성의 표시로 해석된다.

이런 구차스러우면서 동시에 뻔뻔스런 자기변명들은 곧 패배의식의 소산이며 우리 스스로 주체적인 어머니 노릇, 주체적인 사람 노릇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주체적인 어머니들이라면 잘못된 교육풍토에 휘둘리면서 피로와하는 대신 그것을 붙잡고 흔들어서 바로 세워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입으로만



획일적·폭력적 가정교육의 실체

내 아이만 제일, 최고로 잘해서 내 아이가 대접받고, 내 아이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내 아이가 지배해야 된다는 획일적, 폭력적인 가정교육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벌해져서는 안된다. 또 단순한 고도의 기술자를 만들어서도 안된다.

박성숙 (소아·청소년정신과, 박성숙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외래부교수)

요즘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에는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될까? 요즘 아이들 책을 읽을 시간도 없어 무식하다...등등 요즘 아이들이 여러가지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인 평가는 좀 더 이기적이고 시험지옥에 더 시달린다는 점, 더 공격적이 되었다는 면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이 어디서부터—즉 사회로부터 또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였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자녀의 기본적 심신의 발달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정 그 자체가 사회의 기본단위가 되어 사회에 영향을 주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그 문제점과 해결을 찾아보고자 한다.

중례① :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다. 평소 집에서 말이 없는 이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해도 성적으로 1-2등을 다투는 선망의 학생이었다. 집에서도 위의 형과 누나는 공부를 그리 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기대가 컸었다. 그런데 2학년이 되면서 성적도 떨어지고 오락실, 당구장을 배회하고 담배를 피우며 심지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

렇다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비행을 하거나 연애에 빠진것도 아니다.

어머님은 아들이 이렇게 되자 노심초사 일거수 일투족에 다 관여 안할 수가 없었고 그때마다 아들은 나가버리곤 하였다.

학생은 아주 초췌하고 측은하게 보였다. 어떤 질문에도 “모르겠어요” 또는 “생각 안해봤다”고 하였다. 말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별로 생각해보진 않았다는 것 같았다. 자기가 무엇을, 왜, 그렇게, 느끼는 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채 그때 그때 불쑥 행동에 옮기고 있었다. 학생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공부를 잘 해야겠다는 정신집중이 되지 않아 초조하고, 가족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 더 불안하다는 것, 가족과는 공부 진로, 앞으로 할 공부 계획, 과외관계외에는 진지하게 이야기해본 일이 없다는 것, 학생의 기본이나 하고 싶은 것이 어떠한 간에 그것들이 공부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이상 여가에 대해서는 인정이나 이해, 배려를 받은 바 없이 우선 조부모님, 아버님의 지시나 요구에 응해야 된다는 것들이었다. 집을 나가는 경우는 대부분 뒷 어른의 지시에 잘 못응했을 때, 계속

화를 내서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었다고 하였다.

이 학생의 부모님의 기대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너는 공부를 잘 해서 학교에서 인정받고 일류대학의 커트라인이 높은 유망학파를 나와 사회에서 부러워하는 직종, 지위를 가졌으면...그래서 우리아들은, 우리손자는 누구누구다라고 자랑할 수 있다면 좋겠다”

물론 이러한 가정교육의 태도가 어느 사회, 어느 가정이나 일부는 차지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태도가 가정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주류가 되는데 있다. 이 학생은 부모님, 조부모님과 한 개체로서 의사를 표현하고 정당한 되반응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인정받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자신을 잘 알 수가 없었고 더더욱 자기를 실험해보거나 모험해보는 일은 없었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게 가장 좋다’는 주어진 틀 안에서 여러해 살다보니 좋은 두뇌를 가지고도 다양함이라든가, 자유로운 사고에서 오는 창의성, 기존의 틀에 의문을 던지는 신선함을 결여하고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를 타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내 아이만은 꼭 들어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중성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당장 나부터 내 아이 친구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학력 지상주의적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추상적인 정책이나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와 우리의 교육문화를 논의해야 한다. 물론 혼자 힘으로는 안된다. 이웃 어머니들과 힘을 모아서.

다음으로 어머니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미래사회에 맞는 교육은 생활수단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목적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어머니들이 적극 수용해야 한다. 지금 중년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격동과 궁핍의 시기를 헤쳐 나온 세대이기 때문에 남녀를 불문하고 그들에게 교육은 안정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각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아들에게는 법관이나 의사가 최고 목표로 설정되고, 딸에게는 현모양처가 목표로 주어졌다. 전통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급격히 이행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목표설정이 생존을 보장하는 확실한 수단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1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행안이 없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의 중추적 인물이 될 230년 뒤의 모습은 더욱 불확실하기만 하다. 다만 그 세상은 이제까지처럼 획일화가 강요되는, 닫힌 사회가 아니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리라는 전망만은 할 수 있다. 아마도 지금은 질적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직종들이 개발되고 생활양식 또한 크게 달라질

터이므로, 지금의 최고 인기 직종이 그때 가면 아무 쓸모 없이 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기준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짜맞추려 든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은 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교육본래의 목적, 즉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데 힘써야 한다. 내 아이를 공동체적 인간상으로 길러야 한다. 공동체적 인간상이란, 출신배경이나 학벌 성적에 따라 우열대거나 주눅들지 않고 각자의 능력과 자질에 맞게 협동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있고 책임있는 인간상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동체적 교육은 어머니들의 자녀관의 변혁을 요구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든지 소유하고자 하는 수단가치의 삶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다. 물질과 지위 학벌에 대한 욕심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자녀에 대한 소유욕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흔히들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자신의 지위로 착각하며 살아왔듯, 자녀의 성공(=성적) 역시 자신의 성공(=성적)으로 확신한다. 그러기에 대학입시에 실패한 아들 앞에서 농약을 마시고 죽는 어머니들까지 생긴다.

그러나 아들을 명문대에 입학시킨 어머니는 과연 전문대에 입학한 아들의 어머니보다 어느 만큼 더 성취한 것인가. 도대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단계의 욕구라고 하는 자아실현은 여성의 경우 이렇게 대리실현으로 완성되는 것인가.

여성의 행복에 관한 신화는 너무나 완고해서, 개인주의가 극으로 치달는다고 비판받는 사회에서도 더더욱 기

승을 부리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느낌이 든다.

자녀가 부모 특히 어머니의 소유물로 취급되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에서는 아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독립적인 삶이 불가능하다. 자녀에게 대달리는 삶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그들을 소유하려는 욕망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간섭할 게 아니라 간섭이 배제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섬세하고 힘들겠지만 어머니 스스로가 어머니 노릇 이외의 다른 ‘노릇’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어머니가 먼저 독립해야 자식이 독립할 수 있기 때문이며,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볼 수 있을 때에야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 키우기보다 더 큰 형별은 없다고 푸념하는 이 땅의 어머니들이여, 이제 더 이상 왜곡된 교육풍토의 피해자로서 자기연민에 빠져 있지만 말고, 우리가 먼저 아이들의 가해자 노릇을 집어치우자. 그리고 내 아이와 더불어 살 이웃아이들 모두를 소중한 우리 아이들로 품에 안자.

얼핏 생각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것 같지만, 그러나 계란을 던지는 것과 안 던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우리가 한번 본래 있게 치맛바람을 일으킬 때, 교육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쉽게 풀릴 수도 있다. ♣

있었다. 실제로 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또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해볼까 할지 아이디어가 없었다.

공부, 입시를 위한 모든 것—학교선생님과의 긴밀한 연락, 때를 맞추어 미리 예습하는 과외, 오고 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승용차의 대기 등—은 제공되었지만...

요즘을 자녀수가 적고 경제적 수준이 높아져 과보호 과보호 한다지만, 사실 공부에 관련된 것만을 과보호하는 것이지, 자녀의 생활전반에 걸쳐 과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행동의 조절력, 자유롭게 떠오르는 생각, 감정, 예정외의 욕구는 무시당하고 있고, 공부 등 이 사회를 살아가는 기술의 일부분들만을 훈련받는 그리 귀하다고 할 수 없는, 기술자 아니면 일종의 로봇과 같은 인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와같이 남에게 대접받을 만한 사회적 위치만을 얻기위한 획일적인 틀 안에서 교육됨으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난 넓은 도덕성이나 사회질서 의식을 갖기 힘들다. 오늘날 공중도덕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무질서가 횡행하는 데는 이렇게 교육되어진 탓이 있다.

이 학생이 중도에 성적이 떨어지면



서 행동변화를 보이는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획일적 가치관으로 더 이상 이 힘든 공부를 해나갈 수 없고 내적인 생명의 힘이 이렇게 사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중례② : 5학년 올라와서 자주 엄마에게 대들고 동생과도 더 싸우는 남학생이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 할뿐 아니라 급우들을 휘어잡고 인기가 좋아, 학급에서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이렇게 위치를 유지하느라 힘들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지금 학원에서 하는 중학교과정 예습을 우수하게 잘 해내면서도 안가려해서 억지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은 학원에서 점수는 잘 나오지만 여간 벽전제 아니라며, 다른 방법으로라도 학원을 빠질 구실을 찾아봐야겠다고 하였다. 아동은 무엇이든 그렇게 즐거워 보이자 않았으며 짜증스러워하고 중간중간 한숨을 쉬었다. 한편 뛰든지 최고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불지 않을 것 같아 열심히 하려고는 한다고 하였다.

이제 열살이 갓넘은 이 아동은 벌써 지배당하느냐 지배하느냐의 의식에 많이 집착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이루는 공부라는 성취에 달려 있다고 교육받고 그렇게 믿는다. 지식을 얻는 재미보다, 훨씬 더 많이 학교와 집에서 자기위치를 확고히 하는 수단으로 공부가 쓰여진다. 어려서부터 힘의 갈등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격적이 된다. 지배하고 휘두르고 나에게 붙게 하고...이것이 바로 폭력의 시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꼭 지배하려는 집착을 가지는 자는 지배할 수 없을 때는 비굴한 아첨자가 되거나 자포자기 하는 못난이가 돼버린다. 너도 나도 다같이 잘 할 수 있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서로 나눌 수 있음을 배우지 못하고 지배하지 않으면 당한다는 흑백논리의 교육이다.

이 아동도 잘해서 어떻게든 지배를 해야한다는 공격성에 시달리고 있다. 짜증나고 자주 싸우게 되는 것도 이런 공격성으로 계속 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아이만 제일, 최고로 잘해서 내 아이가 대접받고, 내 아이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내 아이가 지배해야 된다는 획일적, 폭력적인 가정교육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벌해져서는 안 된다. 또 단순한 고도의 기술자를 만들어서도 안된다. 창의성, 신선함, 다양함, 자유로움 그리고 재미를 맛 볼 줄 아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공부이외에도, 최고로 잘하는 것 이외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자녀는 자기와 가장 가까운 가족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게 마련이므로, 입시제도 등 사회여건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가족이 건전하고 공평한 양육태도로 임한다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다. ♣

특집/가정교육의 위기를 진단한다

봉숭아 꽃물 들이는 마음

명백한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올바른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 가정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릇된 가치를 심어주는 경향이 크다.

김현자 (신정국민학교 교사)

며칠전 나는 거실에 전자모기향을 피워놓고 네 개의 손톱을 명주실로 싸냈다. 내 어릴적 열 손가락 모두에 봉숭아꽃물을 들이기 위해 정성스레 싸매며 들려주시던 엄마의 옛 얘기가 떠올랐다.

"대구의 큰 이모하고 나하고 봉숭아꽃물을 들이고 대청마루에 누워 있으면 외할머니께서는 부채로 모기를 쫓아 주시며 외할머니의 어린시절을 들려 주셨단다. 얘기를 듣다가 사르르 잠들어 이른날 깨어보면 마당의 모기들은 사그러 들어있고 총총했던 하늘의 별도 보이지 않았단다. 내 손톱의 봉숭아는 큰 이모의 콧등에 묻어 있고 배개나 흠이불에도 봉숭아 물이 들어 있었지. 큰 이모는 콧등에 묻은 봉숭아꽃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봉숭아 물이 내 손톱보다 진하게 들었다고 자랑하기에 바빴단다. 그러면 나는....."

엄마가 내 손톱을 싸매며 들려주셨던 엄마의 옛 얘기를 혼자 되뇌이며 전자모기향의 향내를 맡았다. 지금쯤 우리반 아이들은 나처럼 모기불 아닌 모기향을 피워 놓고 손톱을 엄마의 손길에 내맡기고 있을 것이다.

방학식날 나는 아이들에게 "이 숙제는 꼭 해야만 합니다. 집안 식구 모두가 함께 하면 더욱 좋아요. 꼭 해보세요"라며 '봉숭아 물들이기' 숙제를 강조했다. 손톱에 봉숭아꽃물을 들이면서 엄마의 어릴적 얘기를 들어보라고 했다. 아이들이 나처럼 여름날 밤의 맛있는 기억을 하나쯤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요즘의 우리들은 일찍 저녁상을 물리면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모든 맛스러움을 잊고 산다. 아이도 어른도 맛을 잃고 사는 셈이다. 그래도 어른은 다행이다. 나처럼 여름밤의 모기불이나 봉숭아 물들이기 정도의 맛나는 기억이라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은 참으로 가여운 처지이다. 풀잎들이 타며 내는 모기불 연기대신 모기향의 내음을 맡아야 하고, '유미 1번지'에 봉숭아 물들이 시간을 빼앗겨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성스럽게 손톱을 싸매면서, 엄마의 어릴적 얘기를 듣기 보다는 "피아노 학원에서 뭘 배웠니? 속셈학원 가았지?"라는 말을 날마다 들으며 지내야 하는 아이들도 있으니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조차 든다. 가정의 따뜻함, 엄마의 숨결을 느끼고자 학교에서 달려온 아이를 "다 너 잘되라고 그런다"며 학원으로 내쫓아, 그들을 욕구불만이 가득찬 아이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가정교육을 한번쯤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본래 교육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 만드는 교육, 기르는 교육, 만나는 교육이 그것이다.

우리들이 '아이를 기른다' 할 때 기른이라는 의미는 기르는 교육, 만나는 교육에 가깝다. 반면 만드는 교육은 훈련이라는 의미와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요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지나치게 중시하는 학원·과외교육은 자칫 잘못하면 기르는 교육, 만나는 교육이 아닌 만드는 교육을 강요하는 잘못을 낳을 수 있다.

우리반(국민학교 2학년) 아이중에 정우라는 아이는 속셈학원을 다니는데 오후반일 때는 아침에 학원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점심은 거른 채 학교로 가선 4시나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간다. 점심을 먹으려면 다시 차를 타고 갔다와야 하기에 아예 혼자 빈 시간을

매주 학교 오후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또 소영이는 피아노학원, 미술학원에 가서 공부하면 엄마가 점심 도시락을 배달해주어서 그걸 먹고 학교에 온다. 이처럼 굶은 채 혼자 빈 시간을 매꾸기 위해 오락실을 기웃거리게 되는 경우, 학교에서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에는 이미 녹초가 되어버린 소영이한테서 우리는 기르는 교육, 만나는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안에서 그나마 전인교육을 기대할 수 있는 국민학생들에게조차 만드는 교육, 훈련을 통해 전문기능인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시키게 될까 두렵다.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올바른 인간

을 기르는 것이다. 올바른 인간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명백한 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올바른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 가정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가치를 심어주는 경향이 크다.

혼자서 해야 하는 교과내용의 공부보다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저녁 대화나 한달에 한번쯤이라도 가족 노래 부르기 시간을 통해 더불어 사는 기쁨을 배울 수 있고, 가끔 해볼 수 있는 '역할 바꾸어 일하기'를 통해 엄마의 집안일을 대신해봄으로써 일의 어려움, 감사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가족끼리 편지쓰기, 가족 신문 만들기, 가족 놀이, 가정 헌법(규칙)만들어 지키기 등의 다양한 활동은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기쁨을 제공해준다. 이와 같은 따뜻한 가정 환경은 올바른 인간형성을 위한 교육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언젠가 국어시간에 "이럴 때 엄마가 좋아요"라는 주제 아래 적어보게 했더니 가장 많은 내용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놀아줄 때",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였고 "이럴 땐 엄마가 싫어요"에는 거의 대부분이 "놀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할 때"라고 답했다.

이 한가지의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가정 교육에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격형성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와 피부접촉(skinship)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와 자식간의 따뜻한 접촉을 통해 정서가 안정되며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에 봉숭아물을 들이느라 아이의 열 손톱을 싸매는 정성과, 부채질하며 어린 시절의 얘기를 들려주는 어머니의 멋과 여유가 진실로 가득차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기르는 교육, 만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반 정우, 소영이를 포함한 선들의 아이를 비롯하여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봉숭아 물이 든 손톱만큼이나 아름답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쯤 여름밤의 멋진 기억 하나를 안겨 주느라 명주실로 아이의 손톱을 정성스럽게 싸매고 있을 어머니들의 손길과, 가슴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대화를 그려본다. ♣



특집/가정교육의 위기를 진단한다

별 욕심부리지 않고 키운 사남매

다만 한가지 기도가 있다면 지(知)에 대한 탐구보다도 인간답게 너그럽게 한없이 펴고 사는 마음만을 잊지말게 하여 주옵소서 빌 뿐이다.

정양환 (한국정신문화연구소 교수)

시집오기 전에는 결혼하는 친구들이 꽤나 자신만만해만 보였다. 그때 나는 그런 자신이 전혀 없었다. 오직 두렵기만 했었다. 그러다가 나도 앞뒤 생각없이 그만 그 결혼대열에 뛰어들고 말았다. 그렇다고 무슨 행복한 자신이 생긴 것도 결코 아니었고, 이렇게 사남매가 다 자란 오늘에 있어서도 내겐 자신이라는 것이 도무지 없다.

어린 것들을 때어놓고 학교로 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할 때면 남의 집 아이가 울어도 내 가슴은 아팠다. 엄마가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호강을 시켜준 것도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적었기에 사실 애들이 철든 뒤에도 나는 이를 못할 죄책감 때문에 큰소리 한번 친 적도 없다.

사실 나는 내 자신이 색약(빛깔을 잘 구별하지 못함)인 줄도 몰랐다. 그러니 이공계를 하고 싶은 우리 쌍둥이에게는 치명적인 유전인자를 가진 몫을 어미였던 것이다. 그들의 진로 결정에 이런 장애를 줄 지도 모른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나의 무지를 탓하고 탓했다. 게다가 아이들을 남의

손에 맡기게 되니, 그들에게는 이 못난 어머니와 얼마나 그리웠을까?

또한 대가족 속에서, 그리고 군식구도 늘 그치지 않는 우리 집에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언제나 마지막 순위일 수밖에 없었다. 요즘의 아이들 지상주의의 가정에서 보면 이해 못할 광경인 것이다.

난곡 이권방선생께서, 시집도 가기 전에 눈을 감은 딸을 슬퍼하는 글에서, "음식도 의복도 맨나중이야 그녀의 차지가 되었었고, 갖은 곳은 일을 다 해서 그 어머니와 함께 땅아벌기, 물갈기, 길쌈, 바느질, 다듬질, 빨래 안시킨 일이 없었는데 죽어서는 몸을 가리울 수의 하나 마련치 못했구나"라고 적으면서, "그게 다 네 훗날 복을 짓는 일이나라 여겼더니만 이렇게 가고 말다니!"라고 슬피 읊은 글을 나는 줄줄 읊면서 읽었다. 나도 내 아이들을 뒷전으로 돌렸던 기억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에게는 설빔을 못해 줘도 나를 돕고 그애들을 키워준 언니에게만은 내 힘껏 옷도 해주고 구두도 사 주었다.

아이들에게 정신훈련을 시킨다고 사치는 근접하지도 못하게 했다.

형편도 그랬지만 우리 그것으로 훗날 아이들이 건실하게 자랄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자위하고 살았었다. 그러니 유치원이 다 된가, 삼부제, 이부제의 콩나물 시루에서 키웠다. 그 래야 세상사를 이겨낼 힘이 생길 것 같았다.

집을 지을 때는 돌집도 지고 흙도 쳐 나르게 했었고, 시골 가면 거름도 치고 김도 매게 했었다. 딸애들은 제 사때면 전이나 전유어를 부치게 했었다. 의례껏 저희들의 일로 알아 김장 때면 작은 보시기를 들고 보람김치를 한다고 소매를 걷어부쳤었다. 설이면 강정고물도 같이 묻히고...

이제 다 큰 우리 사남매에 대해서 나는 오직 고마울 뿐이다. 어미가 때어 놓고 다녔건만, 붙들고 가르쳐 본 적도 없건만, 다들 성실하게 제 일에 기쁨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내 자식들은 어느새 나를 일깨워주고 다잡아 주는 조연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

둘째 딸이 집에 들린 어느날 내게 며느리에게 잘하시라고 귀띔했다.

"엄마, 무조건 잘 대해 주세요. 자기 엄마 아빠도 다 두고 오지 않았어요?"

엄마, 부디 잘 해주세요. 예쁜 것도 가끔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시고, 저의 시어머니께라도 고운 것만 보시면 제게 사주시고 싶으시대요" 속알머리 없다고 집에선 야단만 맞던 것이 어느새 속이 넓어졌는지 내게 이렇게 타이르는 것이다. 난 원래 맛도 없고 덩덤한 인간이라 며느리에게도 오사바사하지 못해서 딸의 조언을 제대로 실행하지는 못하지만, 그 이후 며느리를 대하는 내 머리에는 둘째

딸애의 그 말이 늘 떠오른다.

한번은 큰아이들이 "엄마! 제가 어느 대학으로 가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미국의 어느 대학을 꼭 내 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없었다.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공부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스승밑에 가면 좋겠다"

"아이구! 엄마 왜 그렇게 욕심도 없어요?"하고 아들은 피식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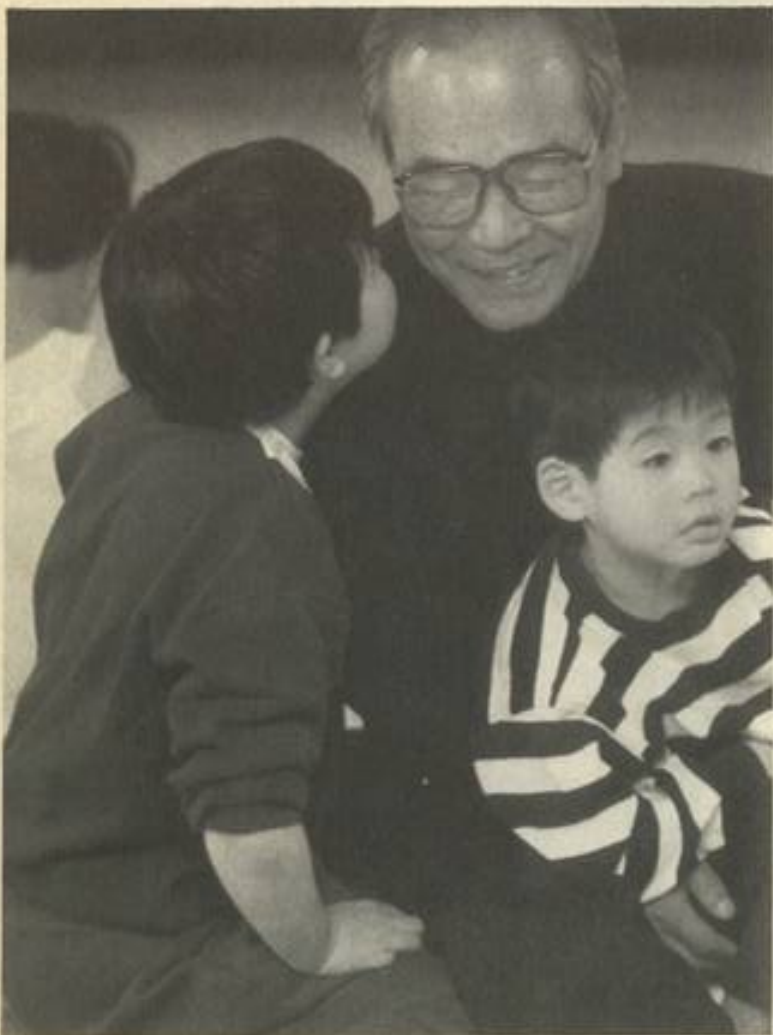
지금은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내게는 자식에 대한 별다른 욕심이 없다. 그 애가 꼭 어느 대학에서 안가르친다고 섭섭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 어디서나 성실하게 가르치고 학생을 사랑하며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기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을 뿐이다.

다만 한가지 기도가 있다면 지(知)에 대한 탐구보다도 인간답게 너그럽게 헌없이 펴고 사는 마음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빌 뿐이다.

작은 딸도 두 아이를 기르며 살림을 하면서도 그런대로 책을 아주 버리지 않는다고, 제 남편을 돕고 사니 신봉하고 대견스럽다. 이제 서른이 좀 넘었지만 그애는 나름대로 낯선 땅에서 키우며 공부하며 남편의 공부에 작으나마 도움을 주고 있는 제 삶의 경험 자체도 그애에겐 고귀한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쌍둥이 막둥이도 열심히 제 학문에 기쁨을 느끼며 제 길을 걷고 있다.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 의젓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게 고맙기만 하다.

큰 딸은 큰 딸대로 아빠의 흰머리가 늘어간다고 유학길을 동생에게 양보했었다. 철들어 아비 어미를, 그리고 제 세동생을 끔찍히도 사랑하는 그 마음씨가 가끔 나를 감동하게 한다. 어미가 나가 일하는 가정에서 딸이로서 세 동생을 거느려 알뜰히 거두어 주었고, 세에 또한 언니라면 누이라면 다음에 비행기도 사준다면 그들의 어릴 때의 우애가 점점 더 자라주기를, 너그러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나는 그저 빌 뿐이다. ◆



부모 자식간의 진솔한 대화가 절실하다

자식이 부모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게 실상일 것이다. '웬지 썩스럽다' '세대차이가 있는데'라는 말로 요약되는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모가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장현섭 (서강대학교 3학년)

흔히들 요즘 젊은이들을 일컬어 소아병에 걸렸다고들 한다. 몸은 예전보다 몰라보게 커졌는데 하는 행동은 예전만 못하다는 뜻이다. 실지 필자가 대학 3년동안 사귀어 온 친구들을 보아도 쉽게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자신이 새로운 일을 해보려는 창조적인 의지를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저 4년동안 버티고 있으면 졸업이 되고 졸업을 하면 취직을 해서 그러저러 먹고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다.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인 듯 싶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무사안일주의로 승진이나 빨리 해볼까라는 생각만 갖고 창조적인 사업을 시도할 생각은 염두에도 두지 않는다. 그저 월급이나 받고 입에 풀칠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소극적 생활방식, 아니 소극적이다 못해 자신의 주체성마저 상실해버린 듯한 요즘 생활 방식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원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자신앞에 어려운 역경이 다가설때

유일하게 헤쳐나갈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간의 자주성도 환경에 따라 지배되는 것이라 했을때 사람에게 있어 교육이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가정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사회구성체를 이룬다고 한다. 말하자면 가정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잠재적으로 내포되고 있고 실지 표현되기도 한다. 가족간의 사랑도 존재하고 때로는 반목과 질서도 흔히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은 인간이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한 훈련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정의 중요한 역할과는 반하여 가정내에도 잘못된 사고방식이 잔존되어 있다.

우선 비민주적인 봉건적 사고방식이다.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해야하고 역으로 부모는 자식에게 군림해야 한다는 유교식 사고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일반적인 사례이겠지만 자식이 부모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도 거의 갖고 있지 않은게 실상일 것이다. 물론 가정은 기초적인 애정관계로 이루어졌으나 웬지 모르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질 않는다.

'웬지 썩스럽다' '세대차이가 있는데'라는 말로 요약되는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모가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즉, 자식들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수렴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처음부터 이러한 현상이 일반화 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국민학교때를 돌이켜보자.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호기심에서든 어떤 것이든 간에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 "오늘은 이걸 배웠는데"부터 "짜증을 좋아하는다는 이야기까지" 물론 자식이 어떤 대답을 원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부모가 보여준 태도는 자식들에게 실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우선 듣기는 한다. 하지만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닌 냉담으로 일관한다. 해주는 최대한의 말로 "그러나...그럴수도 있지"라는 당연한 이야기뿐이다. 좀더 심각한 집안에서는 "아이들은 몰라도 된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이런 소리를 듣게되다 보면 부모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넘어서 가정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십상이다. 이러한 경우가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고 부모에 대한 허상이 하나 둘씩 깨지게 되는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자신의 고민스러움을 가정 이외의 공간에서 풀려는 경향이 생겨 이후 가정과는 보이지 않는 틈으로 존재하게 된다. 말하자면 가정은 자신의 생활만 영위하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관은 외부에 의해 세우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 필요 없을 듯하다. 가정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작은 사회인 이상 믿음과 신뢰로 묶여지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부모는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세워주어야 할 것이며 자식도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를 뛰든지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려면 서로간의 처지와 실정을 솔직히 파악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의도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이라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하

나의 의견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과 이를 실천해나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언을 해주든지 마땅치 않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줄 수는 있어도 이렇게 하라는 판단의 요지를 내려 줄 수는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따로 방을 구해 나가려고 했을때 내가 가족에게 바란 것이 있다면, 인정해주지는 않더라도 왜 그럴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충고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나에게 다가온 대답은 단 하나 "나중에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다. 자식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우선 인정해주면서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풀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 우선 가족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이 된다면 자신도 하나의 주체로서 인정 받는다는 것을 느끼며 좀더 부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본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자식의 처지와 객관적인 상황을 언제나 주시하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대화하는 습관을 길러놓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쓸모없는 허드렛 이야기라도 좋다. 문제가 터지면 사태를 수습하기는 커녕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간에는 기초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 믿음과 신뢰도 아울러 있어야 한다. 아이일때 부모는 환상적인 존재였고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절대적인 인식이 하나둘씩 깨어져나가는 사춘기때를 기점으로 부모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다보면 자식은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씩 없어지고 무시하는 경향도 생긴다. 요지는 이것이다. 부모는 최소한 자식에 생활의 모범으로 서야할 것이다. 부모라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작은 일도 스스로 행하는 모범이 절실하다. 거기서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한다는 자주적인 인식과 행동의 모범으로서 다가 설 수 있는 것이다.

우선 남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스스로 다른 이를 생각할 수 있는 책임감을 키워내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랑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변덕스럽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랑의 방식이다. 또한 남녀관계에서 상대방을 대상화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사랑은 상대방을 자기의 종속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는 법 없이 상대방과 합일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자기의 실현을 확대시켜 나가는 바, 이러한 연습들을 할 수 있는 가정적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



▶ 여성문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의 등장 - '남성의 시각에서 본 여성'에 그치고 말아-

최근 스포츠신문연재만화나 월·주간만화잡지를 중심으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다룬 만화나,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만화가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김이랑 (만화평론가)

만화에 비친 여성상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만화에 등장하는 여성은 주인공이든 아니든 '남자=주, 여자=종'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남자주인공의 연애대상에 불과한 들러리역에 그치고 있다. 또한 성인만화에 대한 외설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을 전인격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철저히 성적 대상으로 고정시켜 형상화함으로써 생동하고 변화하는 현실적인 인간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남녀의 성적관계 또는 애정관계를 위해 사용되는 보조품으로 상품화되어 있다.

이처럼 만화에 등장하는 여성이 극단적으로 왜곡된 모습으로 그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화를 포함, 일련의 대중문화가 갖는 공통적인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평론가 위기철씨는 대중문화의 공통속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그 창작동기가 상업성을 전제로 하거나 적어도 상업성에 의해 통제받는다.



둘째 이와 같은 상업성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 사회에 대하여 체제비판적이라기보다 체제보존적인 성향을 갖는다.

셋째 일단 창작되면 안정된 유통구조를 통하여 대량보급되어 막대한 과급력을 행사한다.

넷째 수요자인 대중들의 반응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까닭에 대중들의 욕구나 기호에 부합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경향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거침없이 수행된다. 따라서 오락

적, 자극적, 통속적인 내용을 갖기 쉬운 것도 이 때문이다.

다섯째 이러한 여러 성격 때문에 유행과 변화에 민감하여 그 생명력이 지속적이지 못하다.

위와 같은 대중문화의 공통속성에 근거하여 왜 만화가 위에서처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여성상을 지니게 되는지 살펴보자.

우선 만화가들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이다. 아동만화나 순정만화의 경우 그 특성상 여자만화가들도 일부 있기는 하나 이들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만화가들은 남성이다. 이 시대의 유명만화가들을 손꼽아 보아도 이현세, 박봉성, 허영만, 고흥석, 고우영, 김철호, 이두호, 이진주씨등 대부분 남성이며 여성만화가로서는 황미나씨 정도만이 이 대열에 동참할 수 있을 정도이니 만화가라는 직업이 얼마나 남성애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만화가 남성중심적으로 기울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만화의 유통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만화유통구조는 대본소(만

화가계: 만화방) 유통경로, 서점유통경로, 가판대유통경로의 세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대본소유통경로가 만화계와 만화시장을 통괄하는 통제기구로서 유통구조의 핵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대본소유통경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경로를 통해서 유통되는 만화는 서점등에는 전혀 공급되지 않고 전량 만화가계내에서만 소화되는 이른바 '빌려보기 위한 만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통구조내에서 만화의 선택권은 당연히 대본소주인의 고유 권한에 속하게 되고 대본소주인은 상업성의 원칙에 따라 대본소를 출입하는 독자들이 즐겨 보는 만화를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이 대본소라는 것이 '불량소년의 산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여성들이 마음대로 출입하기 힘든 일종의 '금녀의 집'이다. 물론 일부 여성전용대본소가 있기도 하나 대부분의 대본소의 경우 여성이 철저히 소외당하는 남성만의 공간이다. 따라서 이 대본소내에서만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탄생한 대본소용 만화는 남성의 전유물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만화의 내용도 필연적으로 남성 중심주의로 흐르게 마련이다.

또한 만화는 체제비판적이라기보다 체제보존적인 성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가부장제도를 축으로 한 남성본위체제이고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고정관념이 사회전반에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만화는 그 속성상 이러한 남성중심체제를 비판하기 보다는 보존성향을 갖게 된다.

새로운 독자층, 여성을 겨냥한 만화계의 움직임

그런데 최근 스포츠신문연재만화나 월·주간만화잡지를 중심으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다룬 만화나,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만화가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만화속에 그려진 여성상도 이제까지의 소극적, 수동적인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자기주장이 강한 적극적, 긍정적 이미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숫적으로 많은 편은 못되고 등장하는 여주인공도 남성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남성의 시각에서

본 여성'에 그치고 마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올바른 여성상 정립이라는 대명제와는 거리가 있지만 이제까지 변변한 여성주인공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던 한국만화계에 이러한 움직임이 발생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만화로는 일간스포츠의 <블루엔젤>, 스포츠 서울의 <파워게임> <여고 3년생> <대학 3년생>, 주간만화의 <한화작 오피스단신> <허무영의 실험부부>, 매주만화의 <호리고 비> 등이 있다.(1991년 7월31일 기준)

이러한 만화가 스포츠신문이나, 주·월간만화잡지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 따라 여성의 신분향상이 이루어져 만화도 더이상 여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대본소만화보다는 개방적인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중매체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여성을 새로운 독자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써 이러한 움직임을 촉발시켜다라고도 볼 수 있다.

이중 이러한 움직임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블루엔젤>이라는 만화를 통해 만화속에 어떠한 새로운 여성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동시에 이러한 만화들이 어떠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자.

여주인공 만화의 선두주자, 이현세의 <블루엔젤>

이 만화는 작년부터 일간스포츠에 연재되고 있는 유니버시티형의 만화

로서 단행본으로도 출간되어 나왔다.

1983년 <공포의 외인구단>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함으로써 한국만화사에 한 획을 그은 이현세가 자신의 고유의 캐릭터인 까치와 엄지에 이어 새롭게 탄생시킨 캐릭터가 <블루엔젤>의 하지란이라는 여형사이다.

작가는 하지란형사를 "남성들의 물리적인 힘에 억눌리고 찌들려 성적 좌절감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성들의 세대를 위기로 단정하고 그 위기를 불식시키는 여자형사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다. 즉 평론가 위기철씨의 표현을 빌려 이야기한다면 근래 들어 대표적 사회악으로 등장한 남성의 대여성범죄—인신매매, 성의 상품화—의 대두와 여기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우울한 여성들의 '우상적 영웅'으로 탄생된 것이 하지란이라는 여자형사이다. 남성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강한 여성' 하지란은 늘 남성에게 의해 지배당하고 억압당해 온 여성에게 카타르시스적 욕구를 대리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이러한 '강한여성'의 등장은 어쩌면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볼 수 있다. 홍콩액션영화중 마담시리즈 즉 에스마담, 폴리스마담, 맥큐마담, 패왕화등과 기동경찰 패트레이버, 캣츠아이, 야와라등의 일본만화에도 물리력으로 남성을 능가하는 '강한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 그렇다면 과연 하지란은 어떤 여성인가?

하지란은 20대후반의 미혼여성으로 경찰 강력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능한 형사(경위)이다. 술도 잘 마시는



1983년 <공포의 외인구단>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함으로써 한국만화사에 한 획을 그은 이현세가 자신의 고유의 캐릭터인 까치와 엄지에 이어 새롭게 탄생시킨 캐릭터가 <블루엔젤>의 하지란이라는 여형사이다.

작가는 하지란형사를 "남성들의 물리적인 힘에 억눌리고 찌들려 성적 좌절감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성들의 세대를 위기로 단정하고 그 위기를 불식시키는 여자형사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다.

편이고 담배는 줄곧 입에 물고 다닐 정도로 골초다. 각종 격투기에 능하고, 사격, 검술등도 남성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하지란을 통해 이 시대의 여성상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직업을 가진 미혼여성이라는 점은 현대 여성들의 결혼보다는 직업을 더 중요시 여기고 또한 직업을 가진 많은 여성들이 경제력의 뒷받침으로 인해 독신으로 지내는 경향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술, 담배를 즐기는 여성들도 늘어나 술, 담배도 더 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도 보여준다.

또한 하지란의 직업이 형사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직업에 여성이 진출, 남자 못지 않은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여성의 능력도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되어 지금까지 여성의 취업을 꺼려왔던 특수직업 예를 들면 선원, 운전, 경찰, 직업군인등의 직업에까지 여성이 하나씩 들춰 진출하기 시작, 직업에 있어서 더 이상 '남자만의 영역'은 존재치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하지란은 여성해방의 선두주자로서 남녀 성차별에 대한 남성들의 뿌리깊은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철저히 깨뜨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계속 연출한다. 먼저 하형사의 트레이드마크인 가늘고 긴 담배를 손꼽을 수 있다. 여성 흡연인구가 늘어 담배가 더 이상 남성만의 기호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여성이 공개석상에서 내놓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금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란은 설패나 상관 심지어는 고위층사람 앞에서도 서슴치 않고 담배를 피운다.

두번째로 하형사는 '성폭력=여성



이 남성으로부터 당하는 성적인 폭력'이라는 통식을 과감하게 부정하고 여성으로서 남성에 대한 성폭력을 행사,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창조해내었다. 즉 동요나 후배 순경에 대한 성적인 언어폭력은 예사이고 장난삼아 후배순경의 사타구니를 툭툭 치고 다니는 행동은 지금까지의 만화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장면으로 늘 성폭력의 공포에 시달려온 여성들에게 해방감을 만끽시켜준다.

세번째로 남성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동요나 후배들과 장난칠 때 머리를 쿵쿵 쥐어박기도 하고 전화기를 집어 던지기도 하는등 남성과 대등한 입장에서 폭력을 주고받는다. 남성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은 제8화 <정의의 사도>편 끝부분에서 후배형사가 하형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책임추궁으로 후배형사의 턱을 날려버리는 장면에서 절정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네번째로 하형사는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월등한 슈퍼우먼이라는 것이다.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다'는 고정관념을 멋지게 깨뜨려버리고 남성위에 우뚝 선 강한 여성이 바로 하형사이다. 남자와의 1대1 싸움에서 절대 남성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격투기의 명수이고 여성을 무시하는 선배경관과의 윌리엄 텔식 권총사격대기에서 선배경관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만큼 사격에도 능통하며 업무처리에서도 늘 남자경관들을 앞질러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내고 끝까지 사건을 풀어 나간다. 또한 하형사는 자기주장이 강해서 자기판단에 상관의 명령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명령불복종인 줄 알

<블루엔젤>이라는 작품이 하지만이라는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지만마저도 철저히 '남성의 시각에서 본 여성'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 만화에 등장하는 다른 여성들의 경우 기존 만화들의 문제점 즉 전형적인 왜곡된 여성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올바른 여성상 정립이라는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도기적 작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면서도 끝까지 자기식대로 밀어붙여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마지막에는 상관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게끔 만드는 당찬 여성이기도 하다.

'여성은 아름다워야 한다' 강조

그러나 <블루엔젤>이라는 작품이 하지만이라는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지만마저도 철저히 '남성의 시각에서 본 여성'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 만화에 등장하는 다른 여성들의 경우 기존 만화들의 문제점 즉 전형적인 왜곡된 여성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올바른 여성상 정립이라는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도기적 작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블루엔젤>은 어떤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가?

우선 작가가 하형사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긴 생머리에 육감적인 몸매, 짙은 매니큐어를 칠한 긴 손톱등 하형사가 '아한 여성'임을 강조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남성 독자층을 의식, '여성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남성의 미의 기준에 맞추고자 애쓴 흔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YWCA 만화모니터 모임의 스포츠신문만화 분석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 만화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여성들을 성적대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자료 4집에서는 <블루엔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여체의 지나친 선정적이고 정밀한 묘사와 변태적인 정사장면들과 음란한

대화내용, 폭력의 지나친 사용과 자색한 묘사들이 과연 전체 줄거리와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며 또한 독자층의 일정부분이 미성년자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생각해 볼 점이 많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 만화의 시작조차도 하형사의 별거벗은 뒷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통속적인 충격파로 독자들의 시선을 일기에 끌어들이려 했다는 의혹을 지을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스토리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내용이고 중간중간에 이야기의 진행과는 아무 관련 없는 하형사의 별거벗은 몸을 눈요기거리로 보여주는등 여성을 극단적으로 '성적 상품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외에도 하형사를 제외한 이 만화에 등장하는 다른 여성들은 철저하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결혼을 한달 남겨두고도 돈을 받고 그 댓가로 직장상사와 관계를 맺는 비서, 술집에 다니다 돈많은 남자를 만나 결혼한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하형사의 친구 종업, 정부와 카섹스를 즐기는 직장여성등 대부분의 여성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정한 여성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여성상은 <인간냄새>편에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사고로 정신병자가 된 극심한 여성혐오자의 입을 통하여 그가 겪은 여성의 부정한 정조관념을 낱알이 폭로하는 식으로 줄거리를 꾸며나감으로써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여성이 '교활하고 음탕하며 상대를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마음 내키는 대로만 행동하는 동물'이라는 인상을 지우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하지만이라는



대부분의 스토리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내용이고 중간중간에 이야기의 진행과는 아무 관련 없는 하형사의 별거벗은 몸을 눈요기거리로 보여주는등 여성을 극단적으로 '성적 상품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외에도 하형사를 제외한 이 만화에 등장하는 다른 여성들은 철저하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내로운 여성상을 제시한 <블루엔젤>이라는 만화속에도 여성을 성적대상으로만 형상화하여 전인격적인 존재로 의식치 않게 만드는 지극히 남성중심적이고 봉건적인 인식의 차원의 여성상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가 봉건과 근대와 탈근대적인 사슬로 얽히고 설켜 있는 혼돈의 시대이고 또한 우리사회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분명한 근대로 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문화발전은 이루어내지 못해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블루엔젤>은 나름대로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는 하나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의 물꼬를 텄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이제 이러한 물꼬가 터진 이상 다양한 부류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만화들이 붓물처럼 밀려나와 이같은 움직임 속에서 자연히 여성상도 지금까지의 왜곡된 모습에서 벗어나 남성과 대등한 '전인격적인 인간'으로서 자리매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

속기사

사람의 말을 빨리 받아 적기 위해 글자나 문구를 간단
한 부호나 점, 높낮이로 표기했다가 일반문자로 번문하는
직종, 속기사.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의회가 활동에 들
어감에 따라 속기사가 부족하다는 소식이다.

현대인이라면 전문 직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결혼후에도 부업으로 가정과 일을 조
화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기 마련
이다.

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
학을 할 수 없어서 취업의 길을 택했
을때 마땅히 할만한 직종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더구나 섬에서 올라온
촌뜨기에게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다.

내가 속기사라는 생소한 직업에 관
심을 가진 것은 형부의 권유에서였고
고졸자로서 대졸자보다 좋은 대우와
높은 보수가 보장된다는 신문, 잡지의
광고가 눈에 많이 띄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학원에 수강신청을 했다. 처
음 계획하곤 기본과정 3개월 정도
배우고 나서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줄
알고 시간을 짧게 잡았다.

하지만 기본과정(약속된 속기부호
암기)을 끝내고 모든 문자와 문구를



방영순 (가나다속기사무소)

손에서 척척 나올 수 있게끔 속도를
내는 게 여간 힘들지 않았다. 입시공
부하듯 국어, 영어, 수학등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게 아니고 사람의 말을 빨리
받아 적기 위해 글자나 문구를 간단한
부호나 점, 높낮이로 표기했다가 일반
문자로 번문하는 직종이 속기사란 직
업이다보니 계속 듣고 쓰고 속담을
시켜야 된다.

하지만 속도를 낸다는게 하루아침에

콩나물 자라듯 느는 게 아니어서 하
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듣고 쓰고, 또
듣고 쓰고 정말 열심히 하는 방법밖
에는 없다. 그러다보니, 지금도 친구나
손님(녹취의뢰인)들과 대화를 할 때면
손을 꼼지락거리며 속기를 하는 버릇
이 생겨버렸다.

속기는 속달 정도에 따라 1급(320
자) 2급(300자), 3급(270자)으로 나
누어서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년1
회 자격시험을 치르게 된다.

아직까지 우리 일반인에게 속기는
주로 국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데만 필요한 직업이라는 인식이 지배
적이다. 그러나 속기사들은 여러 방면
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일반 상장업체의 주주총회, 그리고
재벌기업 각 단위사별 합동회의, 문
화·예술·교육세미나, 중역회의, 이
사회등 회의가 있는 곳이면 속기사는
꼭 필요하다. 녹음기가 아무리 대중화,
고급화되어도 속기사 자신이 속기한
내용을 번문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녹음 된 내용을
문서화하는 일은 속기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소송관련 증인의 증언등은 꼭 속기
사가 해야만이 법원에서 받아주기 때
문에 속기사는 전문인으로써, 공인으
로써 활동범위가 상당히 넓다.

더구나,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
의회가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속기사
가 부족하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보니,
요즘 신문광고등에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속기광고인 것 같다.

2~3개월이면 독학으로 가능, 필수
입 몇백만원, 한글만 알면 가능하다는
등 여러 광고문구들이 실제 속기를
직업으로 하는 많은 속기인들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참 많다.

물론 광고라는 게 조금은 과장된다
고 하지만.....앞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들께 이길은 먼저 걸은 속기인의
한사람으로써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속기하면서 느낀 여러가지 문제
점을 내 나름대로 적고 싶다. 속기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인내와 끈기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현행국가자격시험은 년1회라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1급, 2급, 3급 세급수로 나누어지는

데 설령 년1회 시험중 1급이라는 최
고의 급수에 성공하면 다행이나, 2급을
지원해서 시험에 합격했다손 치더라도
1급을 위해서는 다시 1년이라는 시간
이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또 속기는 순수 독학으로는 힘들다.
물론 일반 학원에서 공부되는 약자책
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
족하다고 본다. 그래서 속기공부는 학
원에 수강하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
는 좀 더 쉬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혹 3개월의 기본과정만 배울지라도
학원 수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취업문제도 꼭 짚고 가야겠다.
연령제한이 없고 속기사 수요는 부
족하기 때문에 길은 많다. 하지만, 지
방의회 속기사 채용에서도 속기사는
사무보조 즉, 조무라는 직책으로 뽑고
있다. 말이 국가공무원이지 1년 넘게
속기만을 전문으로 공부한 전문인에게
그 대우는 너무 미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앞에서 너무 부정적인 문제점을 쓴
것 같아 속기사란 매력없는 직업이라
고 할 지 모르겠지만, 처음 속기문자를
터득하면서 속기로 일기를 쓰거나 간
단한 노래를 받아 쓰고 메모등을 해
놓아도 나 혼자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뭐냐고 묻는 동생에게 으쓱하기도 했
다. 현재는 서초동 법원단지에서 가나
다속기 사무소를 경영하고 있지만 처
음부터 사무실을 차릴 수는 없었고
선배언니 사무실에서 1년 정도 실무
경험을 쌓았다. 속기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회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속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 인
사들과 만나는 것 또한 신나는 일이다.

또, 억울한 사연으로 민, 형사간의
소송이 있을 시에 비밀녹음한 내용을
문서화(녹취서)하여 공증을 해주기도
하는데 일을 해간 후에 재판에서 이
겼다고 감사의 전화를 받을 때는 마냥
내가 큰 일을 해낸 것 같아 일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있다.

끝으로 속기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램이라면 속기를 배우고 있는 분들
이나 앞으로 속기를 배우려고 생각한
분들이, 이 모든 분들이 우수한 속기
사로 많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생각과
취업도 원하는 곳에 많이 되었으면
하는 것과 어렵게 공부해서 한 사람의
전문 속기사가 됐으면 그만한 어느
정도의 대우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전세계 소비운동의 방향 정립

이번 회의는 UN과 연결된 7개 국제기구가 대표를 파견해서 국제소비자연맹의 위상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이연숙 (본회 부회장)

'90년대의 소비자 역량(力量)'이라는 주제하에 58개국에서 198개 단체와 기관을 대표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세번째 맞는 세계소비자대회가 7월8일 홍콩의 국제회의장에서 개막되었다.

참가자 중에는 동구권의 세 나라,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대표들이 눈에 띄었고 특히 중국에서 5개 단체가 대표를 파견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이번 회의는 UN과 연결된 7개 국제기구가 대표를 파견해서 국제소비자연맹의 위상을 과시했을뿐만 아니라 국제소비자연맹 (IOCU-아이오큐로 발음)의 UN 뉴욕대표인 에스터 피터슨여사를 위시하여 비엔나 대표, 제네바 대표도 참가했고 IOCU의 유럽-북아메리카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안 지역은 아예 사무국을 홍콩으로 옮겨 놓은 것 같은 상황이었다.

3년마다 열리는 이 세계적 소비자 운동 지도자들의 모임에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연맹'과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정회원 자



격으로, 소비자보호원, 한국부인회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통신회원으로 두명의 기사를 합쳐 3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의 일원으로 필자와 사무처 직원을 파견해서 전회의 일정을 소상히 보고 배워올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회원들에게 알리고 싶은 몇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한다.

개회식은 요란한 팡파르에 이어 중국의 전통적인 '사자춤'으로 시작, 그 춤이 끝날 무렵 사자가 나가서 단상에

모실 귀빈을 이끌고 들어왔다. 단상에 귀빈과 개회식순 참여자가 좌정하자 로다 카파킨 회장의 개회사로 개막된 회의는 동구권의 시장경제체제가 소비운동에 새로운 도전으로 대두되고 라틴아메리카의 인플레이션과 부채가 빈곤층을 확산시키는 현실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심각한 소비자문제, 유럽공동체가 당면하게 될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급격히 대두되는 환경오염과 공해의 문제, 국제 빈곤층의 빈익빈 현상 등을 다루기 위해 소비자가 뚝뚝 뚝뚝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주제강연을 맡았던 미국의 소비자 운동가 랄프 네이더가 병환때문에 의사의 만류로 참석을 못하게 되어 비디오 영상을 통한 강의를 했고 네버의 세미나가 각각 '변화하는 세계의 소비자 역량', '가난한 소비자의 역량 발휘', '시장자유화와 소비자 역량', '소비자와 환경: 녹색 소비자운동의 출현'을 주제로 해 발제와 토론을 폭넓게 이끌어 갔다.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워크샵이 열렸는데 대략 그 주제를 살펴보면 「지

역적인 소비자운동문제와 업적」, 「국가별 소비자 운동사례」, 「근로여성과 모유수유」, 「마케팅 정보」, 「비교검사를 위한 시장 조사」, 「무역협상과 소비자의 할 일」, 「공해없는 지구가 생산하는 식품: 지속적인 농업방법 채택」, 「항공수송: 소비자를 위한 안전성」, 「연초(Tobacco) 규제 방침: 90년대의 전략」, 「소비자운동을 위한 UN지침」, 「녹색상품 검사」, 「녹색 소비자운동—그 정보와 교육」, 「모두를 위한 건강」, 「자유무역하의 소비자보

정립해 나가는 과정을 체험하게 됐다. 세미나에서도 워크샵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환경오염과 공해문제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과 가난한 아프리카, 남미와 아시아 사람들의 문제, 그리고 소비자의 주장이 생산자의 발언과 균형이 이루어지게 제반정책에 반영되어야한다는 주장들이었다. 특히 내년 9월 열릴 유엔 환경대회에 소비자가 참여해서 바람직한 소비자운동이 되도록 협력하는 문제도 깊이있게 논의



되었다. 호-사례발표, 「에코(ECO)표시방법」, 「농촌소비자—평등적인 사람들」, 「다국적 기업에 대한 UN의 활동지침—소비자의 이익과 로비전략」, 「국제식량정책 수립에 대한 소비자의 영향력」, 「새로운 정보기술: 소비자 단체를 위한 수단」, 「물: 시급한 소비자의 문제」, 「약품특허권—발전도상국의 반응」, 「아동을 위한 식품공급과 생태계」 등으로 가히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모든 관심사를 나열하여 소비자운동가들이 모여서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고 의논하면서 소비자운동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을 체험하게 됐다. 세미나에서도 워크샵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환경오염과 공해문제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과 가난한 아프리카, 남미와 아시아 사람들의 문제, 그리고 소비자의 주장이 생산자의 발언과 균형이 이루어지게 제반정책에 반영되어야한다는 주장들이었다. 특히 내년 9월 열릴 유엔 환경대회에 소비자가 참여해서 바람직한 소비자운동이 되도록 협력하는 문제도 깊이있게 논의

홍수처럼 밀려드는 정보와 신기술의 소파 등, 그 속도와 분량면에서 엄청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본 회의장과 회의실 등을 오가는 동안 여러나라 소비자운동 지도자들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면서 얼마나 서로 다른사람들이 넓게 퍼져서 같은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아시아는 범위가 넓기도 하지만 '젓가락'문화권(Chopstick Culture Region)이라고 이름 붙여진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이제는 빈곤층의 대표처럼 인식된 아시아권에서 생소한 집단으로 부상되었다. 선진국의 문제점과도, 후진국의 문제점과도 전혀 다른 문제를 안은 이 지역은 앞으로 동질성을 근거로 독립된 교섭집단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정광모 회장이 그동안 일본소비자 운동가와의 교류를 바탕으로 단연 한일간 소비자운동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을 대표한 송보경 부회장의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은 모든 한국 참가자들의 어깨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계속 참가와 개별적인 우의를 다져온 소협회 박금순 회장의 역할도 대단했지만 새로 참가하는 대표들도 활발하게 총회무진 누비고 다니면서 새로 UN회원국이 되어서 발휘할 지도력을 흠뻑 배워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새로 선출된 인도네시아의 예르나 위프라르 회장이 이끌어갈 임원진에 시민의 모임의 송보경 부회장이 식량 무역분과 위원장으로서 참여하게된 점은 한국

소비자운동의 위상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세계대회 5일간의 일정을 끝마치는 전체회의는 그간의 토론과 제안을 총결집시키는 결의문 채택으로 이어졌다. 각 세미나에서 제출된 내용과 워크샵에서 건의되고 제안된 행동방향이 밤새워 전문인과 결의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되고 그 결의문안은 문항마다 토론을 거쳐 정회원외 표결로 채택이 되었다. 흔히 요식행위만으로 넘어가는 결의문 채택에 익숙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거추장스러워 보이지만 한가지마다 제안 설명과 찬반토론을 거쳐 충분히 합의되는 과정은 가치 민주주의의 기본을 체험하는 것 같아 즐겁기마저 했다.

전체 결의문은 20개였는데 일본소비자연맹이 제출한 결의안 중에서 핵문제와 세제문제, 일본의 해외개발문제 등의 결의안은 심의과정에서 다른 안전과 중복되어 삭제하거나 기존조항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철회했고 이태리의 소비자 단체가 제출한 「무기에 관한 비용문제」 결의안은 찬반토론결과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13차 세계대회는 다음과 같은 15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결의안마다 소비자 운동에 참고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제목들을 적어보기로 하였다.

〈결의안〉

제1호: '식량무역과 GATT-후진국의 농업생산보호와 소비자의 협상'

참여'

제2호: '건강의 중요성-노년층의 건강문제에 관심'

제3호: '농약(살충제)에 대한 규제-인류의 식품에 끼치는 해독과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

제4호: '지속성있는 농업-생태계 파괴를 막고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제5호: '모유의 장점 홍보와 인공수유나 유아식품에 대한 상업성 배제-일하는 여성도 모유수유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모든 편의 제공'

제6호: '식품에 대한 자의선 등의 조사-충분히 무해가 입증되기까지 금지권고' (7~8호는 폐기)

제9호: '비교 검사-국제교류 적극'

소비자 운동은 다국적간 기업에 의해서 소비자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UN 파견대표로 뉴욕에 나가 있는 에스터 피터슨 여사는 1906년 생으로 85세의 나이도 아랑곳없이 'UN의 다국적간 기업활동지침'을 UN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회원국에서 힘을 모아 달라는 호소를 하여 참가자들에게 숙연한 느낌을 주었다.



전체회의 참가자



개회식

권장, 국가별 개별 검사시설 지원'

제10호: '열대지방의 무계획적인 목재 남벌 저지-사라와크, 인도네시아, 버마, 파푸아 뉴기니 등 대체로 식물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남벌하는 지역으로부터의 수입금지 종용' (11~13호는 폐기)

제14호: 'UN 소비자 지침-각국의 소비자입법 권장, 소비자보호입법 주지'

제15호: '소비자 교육-지속적인 환경 보호의식 확산'

제16호: '남태평양지역의 소비자 보호운동 지원과 확산'

제17호: '물-안전한 물의 공급과 오염방지'

제18호: '동유럽지역 소비자보호 운동의 조직 및 확산과 교육 촉진'

제19호: '새로운 정보와 기술-새롭게 대두되는 정보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습득과 활용'

제20호: '녹색 소비자운동-환경에 연관시키는 소비자운동-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깨끗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소비생활인식'

회의를 마치고도 길이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다음세대로부터

회의를 마치고도 길이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다음세대로부터 흠쳐다 쓸 수는 없다는 명언이다. 오늘의 이 환경을 더 망가뜨리지 않고 가능하면 개선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는 없을까?

흠쳐다 쓸 수는 없다는 명언이다. 오늘의 이 환경을 더 망가뜨리지 않고 가능하면 개선해서 다음세대에 물려줄 수는 없을까?

소비자 운동은 다국적간 기업에 의해서 소비자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UN 파견대표로 뉴욕에 나가 있는 에스터 피터슨 여사는 1906년 생으로 85세의 나이도 아랑곳없이 'UN의 다국적간 기업활동지침'을 UN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회원국에서 힘을 모아 달라는 호소를 하여 참가자들에게 숙연한 느낌을 주었다. 또한 폐회식에서 그동안

수고해왔던 인사들 한명 한명에게 일일이 그 공로를 인정해주며 친 박수가 오래 기억될 것이다.

1994년 회의는 현재 쿠바, 브라질, 베를린, 폴란드, 멕시코, 기아나 등에서 유치교섭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단계이지만 다음 번에는 더 알차고 보다 실속있는 대회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



세미나 장면

세계주의에 접근하는 지구환경문제

최근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물질의 생산소비 및 국제간 폐기물 수출입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국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탈 냉전이후의 공적은 바로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안기희 (국제환경문제연구소장)

선진국을 통한 환경협약

인간환경선언과 세계자연환경을 선 포한 유엔은 종래의 안전보장기능 외에 환경보호기능을 추가시키고 있다. 평화가 지속되는 현재로서는 후자의 기능이 훨씬 우세에 있다. 유엔이 초국가적인 지구 환경보호대책에 관여하는 발언성은 환경문제가 초국가적인 문제로 확대일로에 있다는 점 외에도 내침(경제개발)에 의한 수많은 생태계의 위기 내지는 인명의 피해를 외침이 전에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서이다.

이러한 뜻에서 보면 갑천에서 죽은 황새나 을숙도의 칠새 수난 문제는 유엔의 세계자연환경 정신에 분명히 저촉된다. 즉, '국가 공공기관이 자연 보호와 보전을 위해 적용가능한 국제적인 법적규정등을 집행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 부끄러운 일은 낙동강 하구인 댐 공사 당시 자금지원을 한 한 외국단체에서 회기성 어류의 어도 설치와 을숙도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위치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에 이를 주권침해라고 크게 반발한 일이다. 개발에 따른 사전 환경 영향평가에서 어류와 칠새가 당



연히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환경 문명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일이다.

오늘날 국제 활동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환경법과 강력한 국제 환경협약이나 협정은 한 국가의 범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구환경보전의 법적구속 수단이 된다. 또한 국제간 합의나 협약은 각 국가간의 행동이나 자유를 구속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로 충분한 합의나 협정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 생물자원의 관리를 비롯하여 오존층 보호협약, 온난화 방지 협약, 산업폐기물규제 등 45개의 환경 협약이 있다.

그 외에도 유엔의 범지구보호적 정신은 각국 지도자나 지역간의 협력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취임후 캐나다를 방문하여 산성비대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미국이 '지구를 살리자'는 지구구제실천수칙 50가지를 제시한데 이어 영국의 대처 수상,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이제 세계각국은 경제성장보다 환경보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89 서방 7개국 정상회담에서도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열대림보호 등의 환경 문제가 주제로 채택되고 이 회담을 '녹색정상회담'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국제간의 환경협약은 서방 선진국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산성비와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대기오염에 관한 동서교류의 쟁점 역시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럽경제위원회에 모아지고 있다. 3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기구는 처음으로 산성비에 대한 많은 나라의 합의를 이룩해 내고 있다. 83년 3월에 발표된 국경을 초월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협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 협정에 의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흘러들어가고 나오는 대기오염폐탄을 포착하기 위하여 유럽 전역에 관측망을 설치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독일은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석탄사용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방법으로 서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스칸디나비아 제국은 아황산

가스의 85년 현행기준에서 30%나 대폭 줄이라고 제안하여 동서 두진영의 18개국으로 구성된 국제로비 단체인 '30%삭감클럽'을 탄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배출가스 규제강화는 점증하는 국제무드를 반영하는 것이며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유럽 환경문제를 논의할때 동서독 통일에 크게 이바지 해온 '동서독 환경협정'을 빼놓을 수 없다. 87년 4월 8일 본에서 서독 수상과 동독

수상 호네커가 참석한 가운데 '동서독 환경협정'이 조인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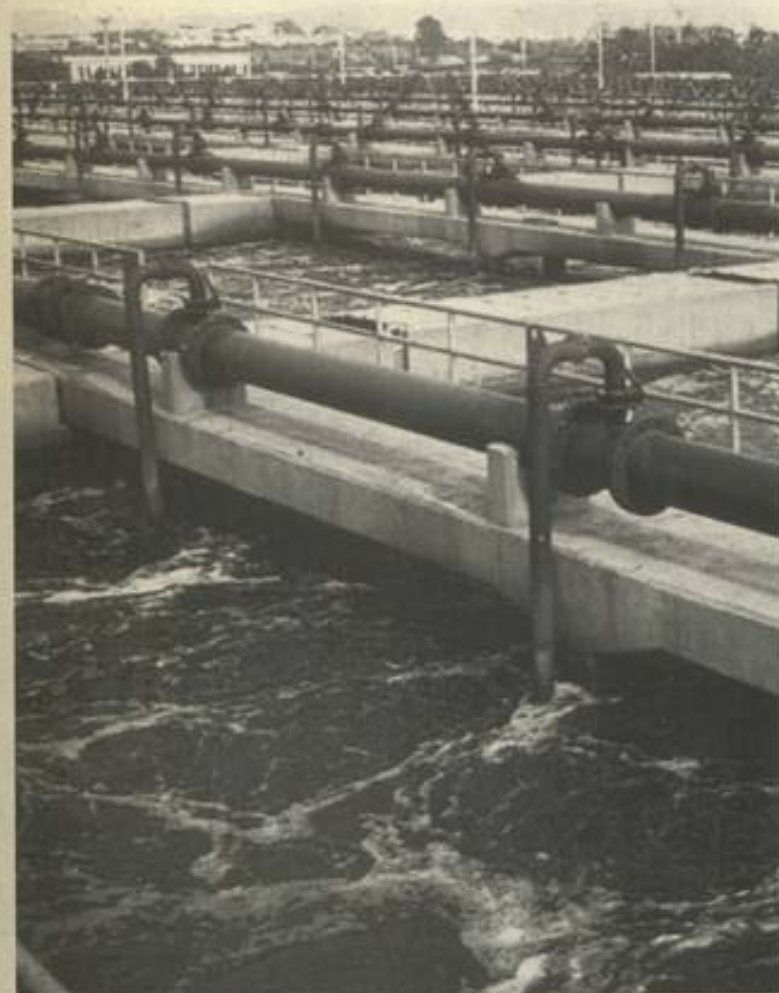
이 협정은 환경보호구역내에서의 서로의 역할에 대한 것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5년이란 긴 세월이 소요되었다. 이 협정의 목적에서도 밝히듯이 '양쪽은 환경보호에 대한 공동관심사와 과학적 기술적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고 환경보호 대책에 공동 노력한다' 그리고 '대기 수질폐기물 및 산림피해 문제등에 대해 하나의 독일 환경으로 이어지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90년 10월 새로운 세계질서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헌장'에서도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기업의 보전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어쨌든 EC야말로 녹색사조의 신물결에 가장 먼저 편승하면서 하나의 EC 창설을 위한 환경 기구, 환경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초국가적인 지역환경보호의 모범국가 들인 셈이다.

동북아 및 남북 환경협력

희망찬 21세기의 한태평양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는 지역적 차원으로서의 새로운 '동북아 환경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탈 냉전시대를 맞이하는 신 대륙의 물결은 황해를 건너 한국, 중국, 일본간 또는 동해를 건너 한국, 소련, 일본간의 새로운 협력시대의 장이 열리고 있는 셈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공업국인 일본과 신흥공업국인 중국의 중간에 위치하므로 공업화에 따른 오염 물질을 가장 많이 받는 위치에 있다. 특히 황해를 내해화 하는 공업개발과 교역증대에 따라 오염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며 그로 인하여 풍부한 해양 생태자원에 큰 손실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황해와 동해를 내해화하는 한·중·소·일간의 새로운 환경협력이 요청된다.

그리고 21세기 내로는 최소한 남북한의 왕래가 가능하고 물자교역이 증대되며 통일의 실마리까지 점쳐지기도 하므로 이에 따라 남북한간 환경보호 구역내에서의 상호합리적인 이용과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더욱 환경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남한의 우수한 경제력과 환경 기술은 북한의 요청에 의해 북측으로

순조롭게 이전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준비가 다각도로 준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태학자들에게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생태보호를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 및 보호대책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인위적으로 40년간 단절된 곳에서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의 관심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도 남을 일이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대응

최근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물질의 생산소비 및 국제간 폐기물 수출입 문제를 둘러싸고 선후진국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탈 냉전이후의 공적(公敵)은 바로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오존층보호를 위해서는 1985년 3월 빈에서 '오존층보호를 위한 빈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뒤이어 87년 9월 카

나다 몬트리올에서 40여개 공업국들과 개도국이 모여 오존층과 파괴 주범인 염화불화탄소(CFC)의 생산 중지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이 의정서 내용은 각 정부가 CFC, 생산을 1993년까지는 20% 감소하고 1998년까지는 30% 감소하고 2000년까지는 CFC,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어떠한 의정서가 채택될 당시만 해도 별반 대응이 없던 각국들은 이를 실행에 옮기려 하자 큰 반발을 하고 있다.

즉, 개도국의 경우 이 환경협약이 92년부터 실행에 옮기게 될 경우 프레온가스, 할로젠 관련 전자제품등의 교역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러한 진통에 사전 주도면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부는 가입여부를 둘러싸고 부처간 의견대립마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늦게나마 환경대사를 임명하는 등 입법제정 그리고 의정서

가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EC제국과 북구제국의 소비자연맹국들의 해당제품 불매운동에 전될수 없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오존층 보호에 참여 하기위해 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오존층 파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이 국제 환경협약에 불참할 경우 감내해야 하는 환경외적인 경제·기술상의 불이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매년 0.5%씩 증가하여 지구온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00년대는 해발 고도가 낮은 국가가 상당부분 해수에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이다. 석탄을 100으로 할때 석유는 81, 천연가스 58이 된다. 그래서 전 세계는 천연가스 보급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주요국가의 이산화탄소의 연간 배출량은 50억톤중 1위가 미국으로 11

억톤, 2위 소련 9억톤, 3위 중국 4억톤, 4위 일본 2.3억톤, 5위 서독 1.8억톤이며 우리는 0.5억톤(88년 기준)을 방출하고 있는 셈이다.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회의는 이제 매일로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지구환경보호 문제는 단순한 환경보호만으로서가 아니라 '신 대량트' 시대의 새로운 주권행사의 정치역학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각국이 중립국회의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사례까지 빈번하다.

지구 보호의 환경 윤리

지구를 살리자는 20년 전의 구호는 이제 우리에게도 전혀 생소하게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구를 살려야 한다는 녹색신사조의 새로운 물결을 아무도 거역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호리고 파괴한 환경, 우리 스스로 막아야 한다. 그렇다면 전 지구적으로 확대일로에 있는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및 산성비 문제는 기존의 가치체계·제도 체계 및 기술체계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전지구적 보호에 공동연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의 국가관에 입각한 지구 환경보호문제는 장기적으로는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지구공동체의 염원에 대한 환경문제 차원의 참여라는 과제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국제정치 역학상의 패권경쟁의 수단으로서 우리와 같은 자원 빈국에서는 에너지 수급상의 숙제로서, 또한 국제협약을 통한 경제, 무역, 기술협력과 마찰의 잠재요인으로서의 환경외적인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시급한 과제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시야에서의 지구환경 보호대책은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및 산성비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지구환경윤리관의 확립이다.

지금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 기상기구(WMO)주관으로 기상변화에 대한 지구온난화 방지 국제협약의 기틀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 내용의 특색은 이산화탄소의 방출감축목표, 선진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 탄소세, 기금부과등이다. 우리가 지구보호의 환경윤리관을 갖기 위해서는 근대과학과의 몇가지 비교가 절제된다.

첫째, 우리의 자연관에서는 근대과학의 기계론적 이원론적 보다는 전체론적, 일원론적 사고가 더 바람직하고, 둘째, 사상구조는 무한성, 비순환성 보다는 유한성, 순환성 원리에 더 접근해야 한다. 셋째, 이론구조는 부분적·전문적 개별적 접근보다는 전체적, 종합적, 체계적 접근이 훨씬 더 환경적이다. 넷째, 행동원리에서는 경쟁적 플러스 최대화 보다는 조화적, 마이너스 최소화의 원리가 필요하며 다섯째, 행동양식은 자연정복, 폐기물 방출, 환경문제 격화보다는 자연과의 조화, 폐기물의 자원화 및 환경문제의 해소가 훨씬 더 생태학적 윤리에 접근한다는 점이다.

끝으로 자연계의 질서조화의 원리가 호혜적인 삶이라는 인간윤리의 발원이라면 우리 인간도 이 지구의 자연과의 호혜적인 환경윤리관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지구를 살려야 한다는 녹색신사조의 새로운 물결을 아무도 거역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호리고 파괴한 환경, 우리 스스로 막아야 한다. 그렇다면 전 지구적으로 확대일로에 있는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및 산성비 문제는 기존의 가치체계·제도체계 및 기술체계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전지구적 보호에 공동연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계·동·향

7월은 여성들의 활동은 부진했던 반면 여성관련정책들이 잇달아 쏟아져나와 무게를 준 달이었다.
90년대에 계속될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중 여성관련부문 정책들이 하나 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의 성과가 각 부문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지난 1월 제정된 영유아보육법도 이달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발효에 들어가는 등, 여성계가 꾸준히 추진했던 성과들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 여성관련정책들을 살펴보고 7월 여성계 움직임을 알아본다.

김경자 (매일경제신문 문화부기자)

여행원제 폐지

제1금융권에서 고졸행원 채용시 남자는 초급행원, 여자는 여행원으로 구분채용하는 것은 금융계의 오래된 관행.

이로 인해 여행원들은 보수, 승진등에서 남성에 비해 형편없는 대우를 받아왔다.

지난달 13일 노동부가 이러한 금융계의 여행원제 폐지를 노동부 취업규칙으로 발표함에 따라 여성계는 남녀고용평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알려진 금융계 종사 여성인구는 8만여명. 전국의 제1금융권 종사자 15만명중 절반이상이며 이중 여행원은 3만5천여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들은 근무연한이 길수록 기본급 및 수당등에서 남성에 훨씬 못미치는 보수를 받아왔으며 승진에서도 행원은

근무연한을 채우면 중견행원으로 자동승진되는 반면 여행원은 행원으로 전직고시를 치뤄야만 하는 등 채용·승진·보수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왔다.

반면 대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중견행원채용은 남녀구분없이 고용, 이번에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집고용상 평등에 어긋난다고 해석, 여행원제를 폐지키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 제1금융권 고졸행원은 채용시 성별이 아닌 직무내용 및 성질에 따라 구분,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중 여성개발부문

7차 5개년 계획중 여성개발부문은 교육, 고용, 문화·사회활동, 복지, 국제협력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92~96년까지 실시되며 그중 여성자원활

동센터 설치와 기존중년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파트타임 설치가 최근 확정됐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지자체를 맞아 인구 15만명 이상의 전국 73개 시·구에 설치될 예정.

지역별 각 센터는 한국여성개발원에 설치된 여성공동의 장을 중심으로 전국자원활동자조직망을 구축하며 각 센터에서 지역 활동장의 조직관리와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여성개발원 산하 여성자원활동인력은행 및 사회단체, 여성단체의 자원활동기능도 이 자원활동센터에 흡수, 활동케 된다.

현재 국내 자원활동자는 50만명 정도며 이중 70%가 여성이다.

파트타임은 정부가 사장돼있는 여성인력활용을 위해 시간제 직종을 개발하고 직업 소개 및 지도, 취업상담을 하기 위한 것.

상대적으로 여성에 유리한 업종을 대상으로 시간제 직종을 개발하고 이 직종에서는 시간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토록 기업체에도 권장키로 했다.

또 이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규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

이같은 시간제 일은 여성에게는 유휴인력활용, 기업측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경기변동에 따라 신속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으나 상시취업여성들의 고용기회확소의 우려도 있어 이에 따른 대비책이 요구된다.

영유아보육법

지난 1월 제정돼 7개월만에 시행령

여·성·계·동·향

과 시행규칙이 마련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보육정보센터 설치, 보육위원회 구성, 보육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과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 등.

이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영유아 1인당 최소 2.64평으로 하고 보육실 및 양호실, 목욕실, 화장실, 수유실 등 부대시설과 놀이터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시설당 의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1인과 3세미만은 7인당 1인, 3세 이상은 15인당 1인의 보육교사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가정보육소나 30인 미만의 소규모 보육시설들은 공동으로 이들 전문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학과중 10과목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 전공자나 보사부 선정 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8백 시간)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사자격증이 주어진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정이전인 금년 1월13일 이전에 150시간 이상 보육교육을 받아 현재 보육에 종사하는 경우 93년 1월까지 20~40시간만 보수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인정키로 유예조치를 두었다.

한편 직장보육시설은 상시여성근로자가 5백인 이상인 기업에 의무설치토록 하고 공해나 위험시설, 보육아동 부족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공동보육시설 또는 보육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또 시·군·구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서 보육지도원과 의사, 간호사, 영양사등을 두고 영유아보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하는 한편 이들 전문인을 두기 어려운 소규모 보육시설들을 순회, 보육서비스를 하도록 했다.

보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각 시·도·군·구별로 조직하여 보육시설의 사업기획 조사 실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등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무규정일뿐 강제사항이나 법적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얼마나 클지 의문이다.

91년 6월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은 국공립 463개소, 민간시설 280개소, 직장보육시설, 18개소, 가정보육시설이 2,221개소로 모두 82,000여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부담해야할 저소득층

보육대상아동은 87,000여명(90년 말 기준)이며 금년도 예산은 418억원이 확보돼있다.

전기 아껴쓰기 운동 펼쳐

이렇다하게 주목할만한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은 가운데 여름철 전력 수요 집중기를 맞아 전기 아껴쓰기 운동이 비교적 관심을 끈 행사였다.

전국 70여개 여성단체들의 모임인 건전생활실천 범여성운동연합등 여성단체들이 일찍부터 에너지절약운동을 펴온데 이어 전국주부교실중앙회와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가 각각 전기절약운동을 폈다.

주부교실중앙회는 7월15일부터 8월 30일까지를 전기소비절약 및 건전휴가보내기 기간으로 정하고 캠페인에 나섰다.

지난달 15일, 22일, 25일과 8월6일등 4차례에 걸쳐 명동입구, 충무로 역앞, 대한극장앞에서 가두캠페인을 편대 이어 8월27일 또 한차례의 가두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여·성·계·동·향



캠페인과 함께 선봉기·에어컨 대신 부채를 사용하자는 뜻으로 행인에게 부채도 전달.

또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용산구민회관에서 여름철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실천다짐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실천지침으로 에어컨과 선풍기 대신 부채 사용하기, 세탁물은 모아서 하고 10분이내로 세탁하기 등, 에너지 절약 생활지침을 만들어 권장하기도 했다.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 개설

한편 주부교실중앙회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지난달 26~28일 롯데 백화점에서 우리농산물직거래장을 개설, 농촌총각들의 중국연변방문에 따른 기념마련행사를 갖기도 했다.

무료탁아소 개설

이와 함께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무료탁아소인 중립어린이집을 이달 개설한다.

서울 중구 만리동 손기정공원안 마을회관 2층에 위치, 지역내 맞벌이가정, 편모·편부가정의 자녀와 영세가정의 자녀를 돌보게 된다.

시설규모는 90평으로 만3~6세 아동 70명을 수용할 예정.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개원에 앞서 운영에 필요한 책상, 의자, 시계, 아동용 식기 등 아동용품들을 기증받고 있다.

정신대문제에 대한 청원서 국회에 제출

이들의에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

의회는 정신대문제에 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가을 정기국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는 이 청원서를 통해 ▲정부가 대책위의 요구사항에 대해 일본정부에 공식요구할 것 ▲정부차원에서 정신대희생자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할 것 ▲정신대 희생자를 위한 위령비를 독립기념관내 부지에 세울 것 등을 요구했다.

북한여성대표 공식초청 허가 신청

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9월 전국여성대회 개최를 앞두고 북한여성대표를 공식초청하기 위해 통일원에 남북여성 교류허가를 지난달 29일 신청.

여협은 통일원의 접촉허가가 나면 조선민주여성동맹 김성애위원장 앞으로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다.

여협은 지난해 전국여성대회에서 남북여성교류 추진위를 발족시키고 금년대회에 북한여성을 초청하기 위한 서신을 지난해에 이미 보낸 바 있다.



▶ 제28회 전국여성대회

모시는 말씀

여성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본회가 해마다 개최해오던 전국여성대회가 올해로 제28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여성대회는 지나친 학과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인성교육이 소홀히 되는 오늘날의 교육문제를 진단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올바른 교육이 이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전국 여성단체의 역할극 경연대회를 통하여 전국의 여성단체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를 다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으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그 열기를 더해가는 이 전국여성대회에 여러분이 적극 참여하시어 더욱 뜻깊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일 시 : 1991년 9월12일(목) 오전10시~오후3시30분
2. 장 소 : 63빌딩 국제회의장
3. 주 제 : 우리의 교육 이대로는 안된다.
-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성이 나서자
4. 등록비 : 1인당 7천원
5. 등록처 : 본회 대회등록부
TEL : 02-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 02-796-4995
6. 참가자 명단 제출 및 등록마감일 : 9월7일
등록은 당일에도 가능하나 혼잡하오니 대회준비상 미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 장 김경오
제 28 회 전 국 여 성 대 회 준비위원장 이연숙

전기 보릿고개-전기를 아껴쓰시다

가정에서 소중한 전기를 아껴쓰는 방법 26가지

자료 / 한국전력공사

조명기구

1. 한집 한등끄기
 - 불필요한 전등사용 억제
 - 응접실의 다점등 지양
 - 외동 일출전 소등
2.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교체
 - 점등시간이 길거나, 점멸회수가 적은 장소는 형광등 사용
 - 형광등은 백열전등에 비하여 3배정도 밝음.
3. 형광등의 적기 교체
 - 양단이 검은 경우는 형광등 교환
 - 웅소리가 높은 경우는 안정기 교환
4. 적절한 밝기 유지
 - 공부방은 스탠드 이용
 - 실내의 밝은 색으로 장식
 - 적정밝기: 안방·거실은 200룩스, 공부방은 300룩스
5. 용무후 소등 철저
 - 용무후 소등하는 습관의 생활화
 - 화장실, 창고, 지하실, 목욕탕 등
 - 취침전 소등 철저
6. 조명조절장치의 사용
 - 현관등에 타임스위치 설치 사용
 - 실내등에 밝기 조정장치 설치 사용



7. 노후가전제품의 교체
 - 에너지절약형으로 가전제품 교체

텔레비전

8. 보고싶은 프로의 선택 시청
 - 필요한 프로만 선택 시청
 - 시제대신 사용 및 TV를 켜놓은 채 잠을 자는 일이 없도록
 - 화면 자주 청소

냉장고

9. 사용방법의 개선
 - 냉장고 문을 여닫는 회수를 적게
 - 1회 여닫는데 0.2% 전력이 소모됨
 - 냉장고문이 꼭 닫혀있는지 확인
 - 더운 음식을 식혀서 넣기
 - 냉장실 60%만 채우기
 - 방열판 먼지를 수시로 제거
10.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
 -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
 - 후면: 10cm 이상
 - 상부: 30cm 이상
 - 통풍이 나쁘면 냉각력이 저하됨
 - 햇빛을 받는 장소와 발열기구가 있는 장소를 피하여 설치

11. 적절한 용량과 절전형 선택 구입
 - 가족수에 맞는 용량 선택
 - 1인당 30~40ℓ가 적당함

선풍기

12. 가급적 소형, 약풍을 사용하기
 - 알맞은 속도를 선택 사용
 - 강, 중, 약에 따라 각각 10W 정도 전력이 소모됨
13. 장시간 계속사용 안하기
 - 연속사용 지양
 - 2시간 사용시 10분정도 쉬었다 사용
 - 취침시 타이머 사용
 - 방문을 열어놓고 사용하는 것이 좋음

에어콘

14. 실내온도는 바깥온도보다 5℃ 낮게 유지
 -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
 - 창과 문턱에는 틈이 있는가 확인
 - 가동시 방문을 자주 여닫지 말 것
 - 주기적으로 필터를 청소할 것
15. 냉방면적에 맞는 용량 선택 사용
 - 평당 50Kcal가 적당함.

세탁기

16. 세탁물은 모았다가 한꺼번에 사용
 - 사용회수를 줄여 전력절감 유도
 - 세탁물의 양과 질을 생각하여 세탁기 시간 조절
 - 탈수시간은 3분이내가 적정
17. 딱한 세탁물은 애벌빨래 후 사용



- 1회 세탁으로 완전세탁 가능

기타설비

18. 전기다리미
 - 빨래는 완전히 말린 후 물을 고루 뿌려 사용
 - 다릴 옷을 미리 준비
 - 얇은 옷은 남은 열을 이용
 - 섬유류의 종류에 따라 온도조절스위치 선택
19. 전기장판
 - 장판 밑과 위는 모포를 깔아 사용

- 일정온도 상승후 온도조절기를 적정위치로 조정
20. 전기담요
 - 담요 밑과 위는 모포를 깔아 사용
 - 일정온도 상승후 온도조절기를 적정위치로 조정
 21. 전기밥솥 및 보온밥통
 - 밥 지을때 냉수대신 더운물 사용
 - 속남비 밑바닥의 이물질 및 물기를 사전 제거
 - 가족수에 알맞는 용량선택
 22. 전기믹서
 - 내용물은 가급적 잘게 썰어 사용
 - 딱딱한 재료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
 23. 전기주전자
 - 음료의 용도, 종류에 따라 온도를 조절하여 사용
 - 타용도 이용 제한
 - 라면 끓이기·약탕기 대용 등
 - 필요한 양의 물만 끓이기
 24. 급수용 펌프
 - 펌프는 급수량에 맞는 용량을 선정
 - 빈번한 가동을 말 것
 25. 전기후라이팬
 - 조리대상에 따라 온도조절 사용
 - 간단한 음식요리는 남은 열로 요리
 - 가급적 뚜껑을 닫아 사용
 - 열어놓고 요리시 2~3배 전력 소모
 26. 전기청소기
 - 자루속 먼지를 사전제거
 - 흡인력 저하시 부러쉬 교환
 - 굵은 못이나 커다란 물질 및 물기등은 사전제거

제13차 세계소비자 대회에 참석

지난 7월8일부터 12일까지 홍콩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소비자대회에, 본회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회원으로 이연숙 부회장과 오해란 기획부장이 참석했다.

'90년대의 소비자 역량'이라는 주제하에 58개국에서 198개 단체와 기관을 대표한 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특히 UN과 연결된 7개 국제기구가 대표를 파견해서 국제소비자

연맹(IOCU)의 위상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됐다.

세미나 및 워크숍들로 촘촘히 짜여진 5일간의 일정을 끝마치면서 이번 세계소비자대회는 그간의 토론과 제언을 총 결집시키는 15개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국의 소비자 운동가들의 단결을 촉구했다.



건전휴가 보내기 캠페인



본회가 주최한 건전휴가 보내기 캠페인이 통일여성안보회, 중앙부인회, 카톨릭여성연합회의 회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중 서울 곳곳에서 전개됐다.

'건전휴가를 보냅니다' '내 분수 맞는 휴가 건전사회 초석된다' 등의 피켓 및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고 홍보용 모자 3,600개 및 부채등을 시민들에게 전해주며, 건전한 휴가풍토 정립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북한여성대표 초청 허가신청

오는 9월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될 제28회 전국여성대회에 본회는, 북한여성대표를 초청하기 위

해 지난 7월25일 통일원에 남북여성 교류 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여성 교류'를 주제로 열린 전국여성대회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본회는 통일원에서 허가가 나는대로 조선민주여성동맹 김성애위원장 앞으로 전국대회의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다.

본회는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내용의 초청서한을 북측에 보낸 바 있으나 당시 아무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오는 9월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하게 됨에 따라 다시 한번 북한 여성대표의 참석을 촉구하는 내용의 초청서한을 보내기로 하였다.

수해성금 전달

본회 김경오회장은 지난 7월25일 비 피해가 극심한 경기도 수해지역 주민들의 복구사업 지원을 위해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신영순회장을 방문, 1백만원의 수해성금을 전달했다.



여름철 퇴폐풍조 추방운동



이번 휴가철 동안 일부계층의 호화바캉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7월19일 2시 한국부인회 회관 2층 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퇴폐풍조 추방운동' 강연회를

연대 이어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노회관 교수(전대 사대)가 초빙돼, 건전한 여름 보내기와 주부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한편 가두캠페인에서 '여름휴가는

가족과 함께 건전하게 보냅니다' '여성들의 과다노출 옷차림은 성범죄를 유발하니 삼갑시다'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등의 내용이 적힌 전단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건전한 여름 보내기

여름철을 맞이하여 갖가지 범죄가 발생하고 가정에서는 이웃의 어려움도 있고 바캉스에 들뜨고 있을때 저희들 여성단체에서는 여름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호소하오니 다같이 건전한 여름 보내기에 동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름휴가는 가족과 함께 건전하게 보냅니다.

● 여성들의 노출화된 옷차림은 성범죄를 유발하게 되니 삼갑시다.

● 바캉스 장소에서 화부놀이를 삼가합니다.

● 호화바캉스로 상대방을 느끼도록 하지 않습니다.

● 집안에서의 자녀와 과다노출을 삼가합니다.

● 여름철 최대 전력소비시간의(오후2~3시) 냉방기구 가동 시간을 1시간씩 줄입니다.

● 에어컨은 밖의 온도보다 실내온도를 5℃ 이내로 낮추어 사용합니다.

「건전한 여름 보내기」에 동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가두캠페인을 마련한 안영자 회장은 "피서라는 이유로 요즘 너도나도 해외로 바캉스를 떠나는 등, 휴가철을 맞아 과소비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내가 내 돈으로 가는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불우한 이웃이 많으므로 상대적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우리들의 광장

(원고도착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창립9주년 기념 제13회 종합학술대회 대성황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창립9주년 기념 제13회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7월6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회원1,500여명과 국내외 초청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서울의대 홍강의

교수의 「아동의 심리발달과 치과치료」, 경희치대 이상래교수의 「방사선의 방어법과 이의 설계」, 이화여대 정화실교수의 「자기를 돌아보는 여인」이란 연제의 특별강연과 국제치과위생사연맹(IDHF)의 Patricia M. Johnson 회장의 「Oral Health Issues and Challenges: Crisis or Opportunity for Dental Hygiene?」에 대한 특별 초청강연이 참석회원들의 열의속에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회원 임상사례 발표에서 정정남회원(조선치대병원)은 「구강악습관의 치료」에 대하여, 임준희회원(원광

치대병원)은 「측두하악장애」에 대하여 발표를 하여 회원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로비에서는 경희, 단국, 신구, 연세 치과위생과에서 참가한 Table Clinic 발표와 협찬사에서 마련한 구강위생용품 및 기구 전시가 있었다.

이날 학술강연 시작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보건사회부 유원하 의정국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윤홍렬회장, 치과기공사협회 문일회장, 구강보건학회 한계회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경오회장, IDHF Patricia M. Johnson 회장, 문헌자 명예회장, 김숙향·한재희교문등 국내외 많은 귀빈들이 참석하여 협회 창립9주년과 종합학술대회를 축하하여 주었으며, 문경숙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능숙한 기술자로서 사랑으로 환자를 이끌어주는 전문인이 되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것"을 당부하고 "소중하고 유익한 학술대회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이어서 안필준 보건사회부장관의 치사(유원하 의정국장 대독)와 윤홍렬대치협회장, Pat. Johnson IDHF 회장, 김경오 여협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창립9주년 기념 제13회 종합학술대회

우리들의 광장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제12차 총회서 회장 선출

전문직업여성클럽 한국연맹은 지난 7월6일, 7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제12차 총회를 가졌다.

회원 및 외부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제13대 회장에 홍연숙씨(한양대 영문학과 교수)를, 제1부회장에 김근화씨(여성자원금고 대표), 제2부회장에 김향신씨(정선파킹시스템스 부사장)를 선출했으며 한편 전문직 여성을 위한 패션쇼도 개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여직원 직업관 교육 실시

지난 7월15일 삼성물산 여직원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정란 전임회장과 최영선씨(한국소프트웨어개발 대표)가 여직원의 직업관에 대한 강연을 가졌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여름채소 별식 강습 및 시식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는 우리 농산물에용실천의 일환으로 7월30일과 8월2일에 서울시 63빌딩 전시장, 대전시 본회 중부지부 학원에서 '여름



여름채소 별식 강습 및 시식회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채소를 이용한 별미음식 강습 및 시식회'를 각각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650여명의 일반인들이 참석하여 우리 농산물 애용실천에 대한 결의를 나타내었다.

신선하고 담백한 맛을 지닌 여름채소로 감자, 오이, 부추, 가지, 깻잎등을 이용하여 별미음식 30종을 전시, 시식한 이번 행사에서 왕준원 본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가정에서 우리 농산물로 식탁을 꾸미는 것이 수입개방 압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살리는 길이며 가족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우리 농산물 먹기를 권했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는 '91 우리 농산물 애용 실천운동의 3번째 행사로 겸소한 명절보내기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추석음식강습회를 9월13일 서울에서 '91년17일 대전에서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 (02) 733-4983, 대전 (042) 255-3995로 연락바람.

대한영양사회

'91 지도자 연수교육 개최

대한영양사회는 지난 7월12일, 13일에 걸쳐 경기도 원당소재 농협중앙연수원에서 본회 및 지부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도자연수교육을 개최하였다. 이 지도자 연수교육은 조직 활성화를 위한 본회 및 지부 임·직원의 리더십 훈련과 본회 지부 운영에 대한 전략개발 및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김용환 HRD 연구소장의 리더십 실천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리더십 훈련 전문교육프로그램이 리더십 스타일, 권한의 원천, 전략적 의사결정, 바람직한 문제해결, 갈등해소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진행되었다.

저녁식사후 각 분과위원회별로 '91년도 사업전반에 걸친 회의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각 지부의 단합을 도모

우리들의 광장

하기 위한 지부별 장기자랑의 시간을 통해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7월13일에는 조정순 회장의 사회로 본회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토의를 위한 대표자 회의 시간이 있는 후 한 호선 농협중앙회 회장의 우리 농민의 현실과 우리 농산물 애용에 관한 영양사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민국전물군정미망인회

에너지 절약 및 건전휴가 보내기 캠페인

미망인회에서는 그간 자자제선거와 오랜 장마등으로 호트러진 주변 분위기를 일신하고 사회기강을 확립, 새롭게 일하는 사회풍조 조성을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방향으로 하절기를 기하여 에너지절약 및 행락질서, 건전휴가 보내기와 해외여행 건전대책에 역점을 두어 가두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ICN 각국대표자 회의 - 대한간호협회



지도자 연수교육 - 대한영양사회

7월18일에는 여름철 에너지절약과 건전휴가 보내기등이 담긴 유인물과 부채를 영등포역전에서 배포하였으며 전국 각시도 지부에서도 연일 실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ICN 각국 대표자 회의 참가

박정호 대한간호협회장과 일행(6명)은 6월22일부터 30일까지 자마йка

킹스톤에서 개최한 ICN/CNR(국제 간호협회) 각국 대표자회의, 회장: 김모임)에 참석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관리직 진출·인권보호·환경공해등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과 역할을 중점으로서의 의안심의와 사업결과 보고 및 학술회의가 있었다.

박정호 회장은 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LA에 들러 재미한인간호계를 둘러보고 회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LA한국일보·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재미회원들을 격려했다.

수해 입은 보건진료소 방문, 격려

또한 지난 31일에는 대한간호협회가 경기지부에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기지역 3개 보건진료소를 방문, 금일봉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피해상황을 살피며 격려했다.

한국, 세계마취간호사 대회서 이사국으로 선정

산하단체인 한국마취간호사회(회장 현동수)는 지난달 노르웨이 오슬로에

우리들의 광장

서 열린 제3회 세계마취간호사대회에서 이사국으로 선정되었으며, 김태민 전마취간호사 회장이 대표이사로 뽑혀 활발한 활동전개가 기대되고 있다.

대한여학사협회

연극「백양섬의 욕망」 공연

대한여학사협회 연극반은 양세화(연출가·중앙대 강사)씨 지도로 유고·베티(Ugo-Betti)의 「백양섬의 욕망」이란 작품을 가지고 주 1회씩 6개월간 맹연습 끝에 지난 5월17일 본회 강당에서 첫 공연을 가졌다.

외판 섬에서 산양(山羊)을 키우며 여자 셋만이 사는 곳에 한 사나이가 찾아오는 데서 연극은 시작된다.

양제로라는 이 사내는 아가타의 남편과 함께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아가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된다. 동시에 아가타 남편이 죽자 부음을 전하려고 이곳을 방문, 농란한 말 솜씨로 아가타는 물론, 딸, 시누이를



수해입은 보건진료소 방문, 격려 - 대한간호협회

유혹하여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아가타는 섬속에 빠진 그를 죽게 내버려두었고, 딸과 시누이가 밧줄을 양제로에게 내려보냈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다. 대중의 줄거리는 이렇게 전개된다.

출연한 이지연, 이영애, 윤인미, 임현옥, 박미란 회원은 "연극 공연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많은 준비와 딸과 수고가 필요한지 미처 몰랐다"고 이구동성.

특히 딸역(실비아)을 맡았던 윤인미 회원은 인간의 욕망과 삶에 대한 집착의 의미를 연극을 통해 실제로 경

험했다고 술회했다.

「작가와의 만남」시간 가져

「여학사 독서반」을 7월2일 10시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마니 하우스(압구정동 고재)에서 소설가 복거일씨를 초빙, 「작가와의 만남」시간을 가졌다.

주제 「문학작품을 통한 우리 의식의 재조명」으로 열린 이 만남의 시간에 참석한 독서반 회원과 일반인은 그의 문제작품 「碑銘을 찾아서」에 대한 열띤 토론을 가졌다.

「순영노인교실」환경보존 운동에 앞장서

대한여학사협회가 16년째 관할하고 있는 「순영노인교실」 노인학생 40여명은 지난 7월5일 환경보존 활동의 하나로 본회 회관 인근(수유동 일대)의 미화를 위해 쓰레기 줍기 운동을 했다.



연극 「백양섬의 욕망」 공연 - 대한여학사협회

우리들의 광장



독서인, 작가와의 만남 시간 가져 - 대한여학사협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 회장 내한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장 미니 롤린 스씨가 내한, 지난 7월26일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관에서 절제운동에 대한 강연을 갖고 한국기독교여성의 절제운동을 격려했다.

롤린스회장은 강연을 통해 "음주, 흡연, 마약은 뇌세포를 파괴할뿐 아니

라 인간의 오감과 소화기관, 혈액순환까지 교란시키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것"이라고 밝히고 "음주, 흡연, 마약은 하나님의 성전에 인간의 몸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이 사실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에 세계절제주일을 상정, 이를 제정토록 하기 위해 각 나라를 순방하고 있는데 일본에 이어 8일간의 여정으로 24일 내한했다.

롤린스회장은 강연후 참석자들에게 "유엔에서 세계절제주일을 제정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절제

회에 가입, 절제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며 "음주, 흡연, 마약을 하지 않는 크리스천이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의 김정주총무는 "20년전 세계절제회장 비세스 제렛이 한국을 방문하고 했지만 공식적인 방문은 한국 절제회 68년의 역사중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며 "롤린스 회장의 방한으로 절제회의 새로운 부흥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맹인교회 숙사 건축 지원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는 지난 7월 맹인교회 숙사 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원을 기부했다. ◆



순정도민교회의 환경보존활동 - 대한여학사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부	회	장	김	경	오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2-307	584-1426
부	회	장	정	연	숙	양천구 신정동 옥동 신시가지아파트 801-1504	649-5353
부	회	장	김	옥	심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8-909	783-2924
서	기	이	사	강	환	인천시 북구 산곡동 370-71 협성원	032-93-3493
서	기	이	사	최	자	과천시 중앙동 주공10단지 1012-401	503-4691
회	계	이	사	김	순	종로구 낙원동 284-6 낙원아파트 805	796-7557
회	계	이	사	백	애	종로구 관철동 260 세브미용실	732-9585
감			사	이	란	강남구 신사동 615-4 (주)인테크	511-0031
감			사	양	식	도봉구 수유5동 510-20	352-8607
조	직	관	리	위	은	강남구 대치4동 910-6 현대빌라 101호	561-2630
재	정	위	원	장	용	종로구 혜화동 15-8	762-1090
출	판	공	보	위	정	강동구 명일동 현대아파트 101-405	488-1881
기	회	연	구	위	순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5-1305	562-6416
국	제	관	계	위	호	강남구 개포동 경남아파트 8-119	572-4308
사	무	총	장	김	주	종로구 효자동 174	738-4380
					래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아파트 507동 1109호	471-7865

회원단체

(회원단체가입순)

회	원	단	체	명	회	장	주	소	전	화
대	한	간	호	협	회	박	정	호	중구 방림동 88-7	279-3618
대	한	기	독	교	여	여	귀	옥	용산구 동자동 35-26	754-1707
대	한	여	학	사	협	회	용	언	도봉구 쌍문동 423-44	993-2378
대	한	조	산	협	회	김	복	순	중구 정충동 1가 35-5	279-1972
여	성	문	제	연	구	회	박	지	중구 북정동 18 대학문화원 304호	273-7645
중	앙	부	인	회	이	순	옥	숙	성북구 보문동 2가 7	928-2107
대	한	주	부	를	련	합	조	숙	중구 남창동 1-2 새로나백화점 6층	752-4227
가	를	릭	여	성	연	합	오	주	중구 영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전	문	직	업	여	성	를	백	란	용산구 청파동 2가 53번지 화빌딩 303호	718-0915
법	태	평	양	동	남	아	문	주	강남구 삼성동 113-1 코스모스텔 305호	557-8773
한	국	부	녀	복	지	연	안	단	마포구 공덕동 427	712-0713
한	국	여	성	학	공	협	정	지	중구 불래동 1가 132-5	755-5341
대	한	미	용	사	회	중	오	순	서초구 방배동 925-5	585-3351
한	국	자	수	협	회	김	태	숙	서초구 구반포 본동 67-103	534-1956
한	국	우	먼	스	를	김	인	숙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924-5923
한	국	여	성	문	화	생	은	회	서초구 반포동 425-1 반포소피아문 7동520호	533-1906
국	제	존	타	서	울	를	배	회	성북구 성북동 330-500	764-4445
한	국	여	성	크	리	스	최	자	종로구 평창동 537-9	352-1872
대	한	민	국	전	물	군	영	임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	782-2862
대	한	악	사	회	여	악	정	심	서초구 서초동 1161-2 악사회관	581-1201
우	리	못	협	회	이	은	임	임	종로구 시간동 74번지	734-9477
한	국	식	생	활	개	발	왕	련	종로구 청진동 286	733-4983
국	제	여	성	총	연	맹	김	제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미빌딩 501호	549-5161
대	한	영	양	사	회	조	정	순	영등포구 신길7동 1351-3 천록빌딩 704호	842-4334
국	제	승	공	연	합	전	조	자	용산구 한강로3가 63-1	796-5333
통	일	여	성	안	보	회	정	숙	은평구 녹번동 183-1	357-3977
대	한	치	과	위	생	사	문	경	마포구 노고산동 54-18	332-0914

편집후기

한 인간의 면모는 어떻게 완성되는 것일까? 선천적인 유전인자, 후천적인 교육, 주위환경 등등 많은 요소가 작용할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힘으로 개선가능한 부분은 교육과 환경. 치열한 경쟁사회·적자생존의 원칙들을 내세우며 숨가쁘게 돌아대는 살벌한 사회분위기와 교육공포를 개선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키워야한다는 심지같은 목소리들을 모아 특집으로 꾸몄다.

월간여성 ● 1991년 8월호 통권 288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 김경오

편집인 : 김금래

인쇄처 : 코리아 해럴드

사진식자 : 현라기획

발행일자 : 1991년 8월 10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427, 428

☎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 796-4995

● 편집 :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 조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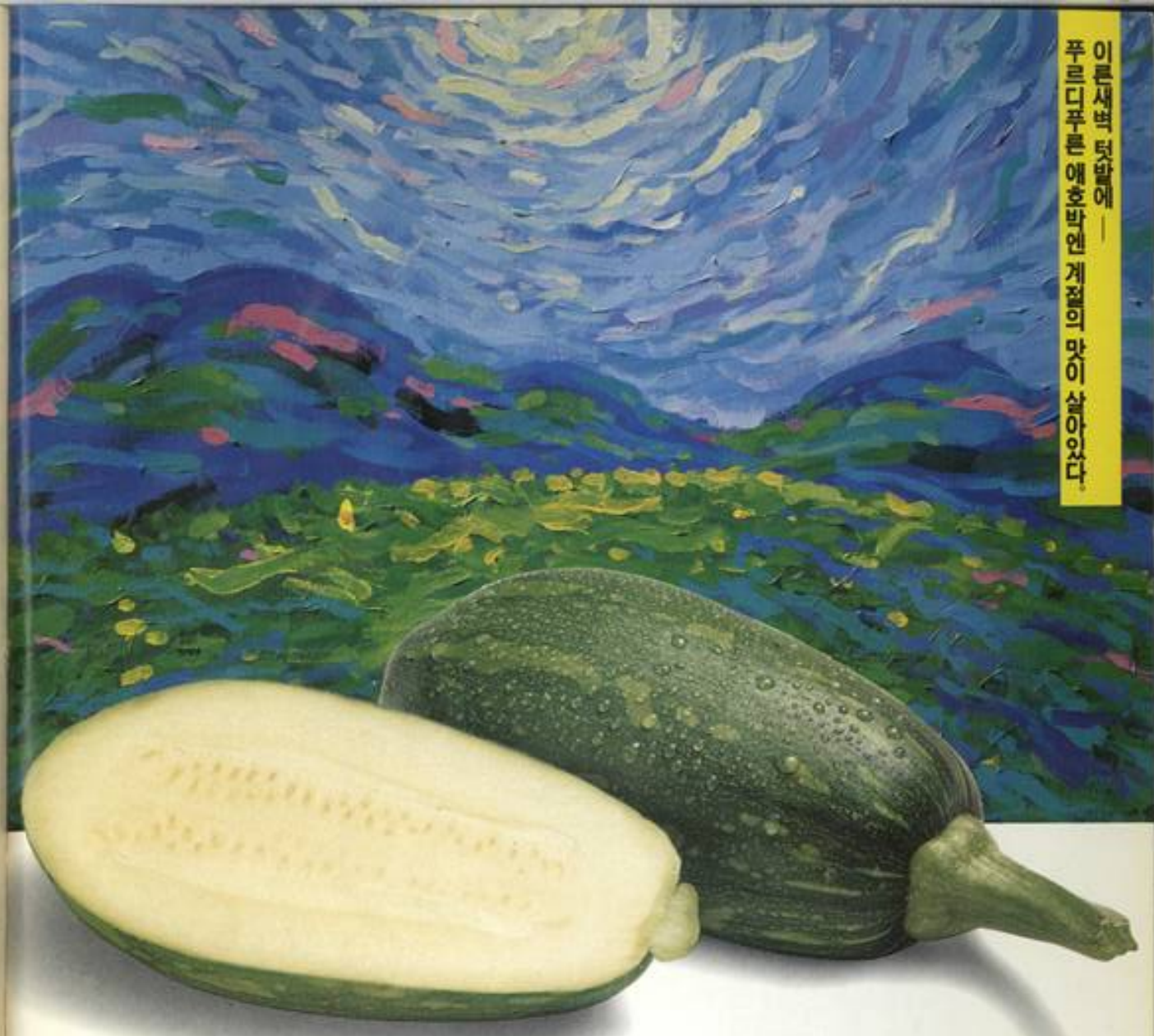
위원 : 김호자 / 문현경 / 박금옥 /

서은경 / 신동식 / 오종자

담당 : 권수현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



이른 새벽 텃밭에
푸르디 푸른 애호박엔 계절의 맛이 살아있다.

“감치미가 계절의 맛을 살려줍니다”

보글보글 손쉽게
보글보글 맛있게



푸르고 향긋한 맛이 좋은 애호박.
계절의 맛이 살아있어 찌개·국거리로
매를 수 없죠.
살짝살짝 끓이다가 감치미를 넣고
조금만 더 보글보글...
“음~ 맛이 살아나요!”
이제 국·찌개맛은 감치미로
맛있게 간편하게 즐기세요.

주식 미원

